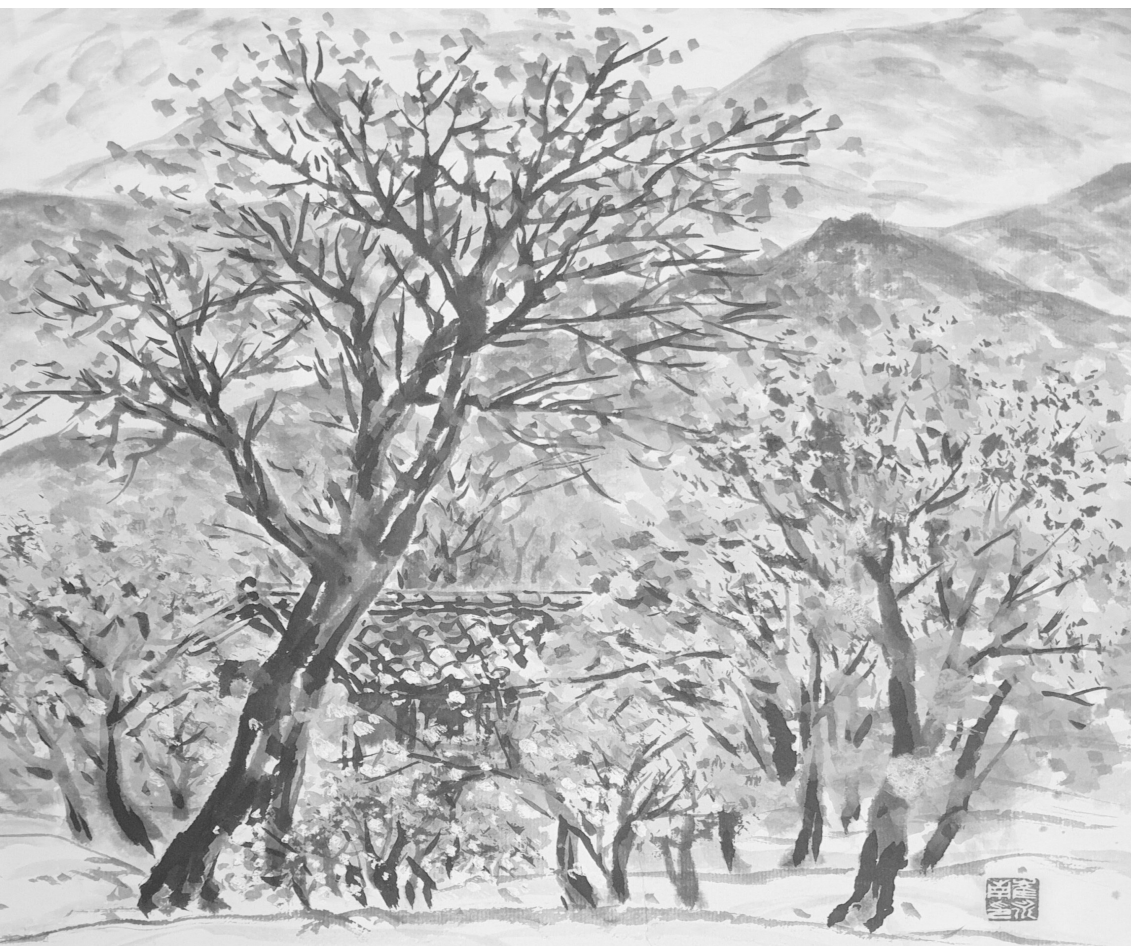


중구문예

2024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문예》 32호를 발간하며



남 월 진 | 서울중구문화원장 |

사 계절이 저마다의 색으로 빛나듯, 글도 각기 다른 온도로 우리의 마음을 따스히 채워 줍니다. 올해도 이렇게 《중구문예》를 통해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요즘 우리는 ‘대협오의 시대’라 불리는 사회적 단절과 갈등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 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 줄의 시, 한 편의 산문이 마음에 여유를 불어넣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선사해 줍니다.

한국여성문예원에서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한 권남희 수필가는 수필문학계의 중심인 《한국수필》의 편집주간을 13년 동안 역임하며 독자와 작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권남희 수필가의 글



은 진솔한 언어로 삶의 본질을 묻고, 우리가 놓친 가치들을 되찾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 주며, 독자의 삶을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구문예문학상 수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이 시대의 목소리를 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우리 지역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중구문예》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집위원회와 중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길성 구청장님, 시·구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중구문예》가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중구문예》가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풍요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중구의 문학상



김도경 | 한국여성문예원 원장 |

2024년 올해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놀라운 낭
보가 들려왔다. 한국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다.

한국여성문예원은 그동안 《중구문예》를 통해 문학을 사랑하고 대중(중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삶의 깊이와 사람들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학의 본질을 통해 감동을 주고자 한 한국여성문예원의 반세기 가까운 노력의 시간이 그리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된 계기였다.

2024년 22회 중구문예문학상 응모에 다른 해와 달리 정말 많은 중구민들이 응모를 해주셨다. 이 또한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총 80 몇 편의 작품을 보내 주신 분들의 관심은 아마도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힘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다.

올해 22회 중구문예문학상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구문예》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 《중구문예》는 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특히 중구민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16회 서울문학 대상을 수상한 나태주 시인과 장금생문학상을 수상한 권남희 수필가의 작품이 실렸으며, 문학이라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작가분들의 작품도 예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충실히 담고자 했다.

올해 ‘중구문예문학상’에 참여하여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학상이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작은 계기가 더 큰 꿈이 되어 제2, 제3의 노벨문학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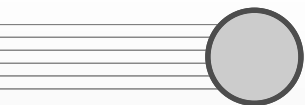
중구문예문학상이 그런 한국문학의 찬란한 미래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32년 동안 문학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신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님, 중구청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신 한국여성문예원의 이사, 편집장, 편집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적인 도약을 바라며 《중구문예》가 그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올해의 문학인.....



2024 장금생문학상 수상 | 수필가 권남희 선생님 서면 인터뷰
— 오류와 모순을 수용하는 다양한 식견 가져야

●수필●

글씨seed와 발아의 힘 | 권남희

수필가 권남희 선생님 서면 인터뷰

— 오류와 모순을 수용하는 다양한 식견 가져야

일시: 2024년 11월

인터뷰 형식: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인터뷰

- 1987년 《월간문학》 수필 당선
-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 한국수필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한국문학백년상, 장금생문학상 외 다수 수상
- 수필집 『민흘림 기둥을 세우다』, 『이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다시 쓴다』 등 14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선생님께서 2024년 4월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에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근황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사장 직함을 받고 나니 대표성을 갖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등 여러 단체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고 특강도 다니고 바빠졌습니다.

1971년 한국 최초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조경희 선생님이 창립한 한국수필가협회는 회원수도 많고 월간지 발간과 연간 사업 진행 등 규모가 큼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조경희 문학상을 스톱하고 있는데 다시 유치하는 사항을 논의했고 6월에는 국내 심포지엄을 강화군으로 정하고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조경희 문학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문학관 관장님과 협의했습니다. 조경희 선생님과 장금생 원장님의 관계는 모녀지간처럼 서로 돕고 수필 발전을 위해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Q: 선생님께서는 198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37년이 되셨고 수필집 『미시족』, 『민흘림 기둥을 세우다』 등 14권을 출간하시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수필에 입문하신 내력이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몇 년 전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소설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도 만들었는데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공감대를 크게 얻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1980년대는 여성들이 더 억압받는 시대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도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 둘을 낳고 살림만 했는데 자존감은 바닥이고 존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슬픈 대상이었습니다. 30대 초

반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았는데 한국여성문예원 8기 수강생 모집(원장 장금생)이었습니다. 무조건 등록하고 낙원아파트로 공부를 다녔지요. 김동리 소설가, 황금찬 시인, 오세영 시인, 재불 화가 권옥연 등 저명인사들로 교수진이 짜여져 환상적인 기분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 행복했습니다. 수필가로 등단하니 비로소 세상은 넓고 작가 활동의 길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통해 내 인생의 잘잘못을 따지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길은 얼마든지 많고 그야말로 마음먹기에 달린 게 인생인데 나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결과 도움은 달콤하지만 어느 순간 털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홀로 서기가 힘들어진다.

곳은 나 홀로 내 자신을 향해 물어뜯고 할퀴어 난 상처를 보면서 실컷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진짜 곳이라고 생각한다. 내 삼십대는 곳관 그 자체였다.

—서른 살 인생의 곳관

Q: 현재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및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수필가협회를 이끄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문학의 해외 교류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수필에서도 세계적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가 나와야지요. 해외 행사를 다니다 보면 K-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좋아졌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려 노력해야지요.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웬만한 글쓰기는 1분 안에 완성해내는 세상입니다. 학생들 글쓰기 숙제도 AI가 도맡고 있는데 아직은 기초 단계의 결과물이지만 그럴수록 작가들은 더 단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잘 보인다고 내공을 다 쌓아야 AI를 내 것으로 만들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필분과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남성들은 퇴직 이후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 입문하고 여성들은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다음 자기를 돌아보면서 삶의 가치 기준과 질을 높이고 싶어 문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적이고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작가의 자유로운 정신과 낭만적 규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작가는 독창적인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관습이나 도덕에 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도덕관, 낭만적 규범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매우 공감이가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작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A: 미국의 수필가 필립로페이드는 ‘1인칭 수필쓰기’에 대해 강의하면서 예술가는 낭만적 도덕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회 규범에 따라 기준이 변합니다. 문학이 도덕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글을 쓴다면 좁은 시야로 위험한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와

모순을 작가는 어떻게 수용하고 다양한 식견으로 풀어 쓰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에 지배를 받아왔는데 작가에게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구조이지요. 점점 절대 가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성(性) 정체성에 흔들리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도 바꿀 수 있고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해체하고 인간이 아닌 것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의 탈인간(posthuman)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타인을 향한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영향력은, 표준화를 이루고 세팅만 하면 되는 그런 먹거리가 아니고 음식 장인이 손맛으로 요리해 내는 그런 감칠맛입니다.

Q: 선생님께서 수필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지요? 현재 작업중인 작품이나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모멘트에 역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품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요.

A: 멋진 사랑 이야기 하나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몇 년 전 글을 묶었는데 이걸 아니다 싶어서 보류하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루하다는 느낌이 확 들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기 작품들은 자전적이고 부모님 이야기를 쓰다 보니 서정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고향이 그림고 더러 외롭고 결혼 생활이 힘들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수필집을 묶으려 정리하다 보니 사회 모순을 꼬집었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적응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기 작품들이 훨씬 인간적

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수채화를 보는 듯 다정하면서 편안하고 공감대가 많아서이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원고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것입니다. 일제 징용과 북한을 탈출한 후 6·25 참전, 결혼 등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Q: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문단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뻐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A: 가장 기뻐던 순간은 역시 수필가로 등단했을 때입니다. 1980년대 후반 여성 작가가 많지 않았던 당시 신분 상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작가 생활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생각도 커지고 내 이름의 책도 내니 품격을 얻은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장금생 원장님의 활약으로 한국의 작가 교수진 150명 정도가 해외 행사를 다닌 일입니다. 저로서는 최초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장군의 아들 원작 소설가 홍성유 선생님, 마루타를 쓴 정현웅 소설가, 정목일 수필가 등 쟁쟁한 선배 작가들과 함께 뉴욕과 워싱턴 하와이 등 보름 동안의 여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Q: 선생님께서는 한국수필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장금생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에 대한 소회나 고(故) 장금생 선생님과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A: 장금생 선생님은 여성들을 수필작가로 이끌어 준 산파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성들이 이렇다 할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신문사 몇 군데 문학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감하게 한국여성문예원을 설립한 장금생 선생님의 추진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프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고 성장하여 문화계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문예원은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어 준 주춧돌이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예술 강좌를 열고 있어 사회가 행복해졌다고 여깁니다.

Q: 연간지로 발행되는 《중구문예》가 올해로 3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민의 문학적 감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문예지로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귀한 명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중구문예》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중구라는 특성상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해오셨기에 늘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들도 나이가 들면 귀촌, 귀어를 하는 것처럼 문학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중구문예》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중구문예》파이팅입니다.

□ 편집·정리: 이이향

글씨seed와 밭아의 힘

권 남 희 | 수필가

“종자는 따로 있단다.”

농부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가끔 생각난다.

열 살 무렵인가. 아버지를 따라 종묘회사를 따라간 적이 있다. 그 봄에 처음 만난 풍경들... 세상에 씨앗이 종류별로 그렇게 많다니 충격이고 씨앗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다. 여름철 농사가 끝날 때마다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게 오이, 참외, 수박 씨였는데 무심코 지나친 그들은 알리바바의 요술 램프였다. 호박 가지 배추 무 등과 당시 특용작물이었던 토마토, 양배추의 종자 값도 차이가 났다. 아버지는 농사법 책도 사고 비료도 구했다.

12평 정도 국민주택 우리 집보다 큰 상점에는 깨알 같은 씨앗부터 양파처럼 제법 몸피가 있는 뿌리까지 가득했다. 연필로 짙은 점 같은 크기로 작거나 무뚝뚝해 보이는 돌멩이 같은 종자들. 그들이 뿌리를 내려 생명을 일으키고 우리들을 살게 한다는 일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까지 주었다.

종묘회사를 구경한 뒤 그들의 위대함을 깨달아 나는 틈나는 대로 밭으로 나가 씨앗들을 줍고 모았다. 씨앗 봉투를 만들어 종류별로 이름을 쓴 뒤 아버지에게 선물했는데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씨받이용들은 처음부터 따로 밭을 만들어 키워야 한다는 걸 몰랐다. 잠자

는 씨앗부터 상품이 될 수 있는 씨앗은 곁에 배꼽이 있고 배꼽줄에 씨
 젖 등을 갖추고 저장 방법도 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씨앗을 육종
 회사에서 돈내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몇 년에 한 번씩 품종을
 바꾸는 씨앗은 아버지에게 신천지였다.

주고받는다.

농부 같은 마음으로 귀담아듣다가 번개를 맞을 때가 있다.

아! 글로 쓰면 좋겠네 감탄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 말은 말로 사라지고 나중에 해야지 같은 믿을 수 없는 지푸라기만 잡고 있다. 문맹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뭐든 말로 배우면서 글쓰는 일을 혐오했지만 플라톤 등 그의 제자들이 테스형의 어록들을 책으로 엮어 냈다.

글을 쓰기 위해 앉으면 보고 들었던 모든 일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호연지기는 사라지고 머릿속이 텅 비어 버린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도 허세라는 걸 깨닫는다.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는 데 책꽂이를 살피고 컴퓨터를 열어 파일을 확인해도 별 게 없다. 나의 종자 회사는 개점 휴업이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보듬지 않은 이유로 글씨seed들이 없다.

수다 속에 꽃피고 번뜩이던 감각들은 어디로 갔을까. 분명 글쓰기에 좋은 팁들이 불꽃처럼 튀었고 정보의 바다를 누비는 수다였는데 그걸로 끝날 때가 많다. 카페에서의 매력적 잠담들은 헤어질 때면 상영 끝난 극장의 뒷맛으로 남는다. 먹다가 툭 뱉어낸 참외 씨앗이 계절 끝에 싹을 틔우다가 성장 가망성을 잃는 일과 같다.

수다는 그 소모적 기류 때문일까. 글쟁이에게 밀친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의 수다들로 에너지가 고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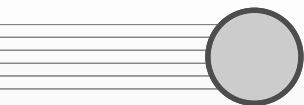
씨를 만들지 못하도록 호르몬을 조절한 씨 없는 수박이나 씨 없는 포도 등을 먹는 우리들의 시대와 맞물려 있다.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잘 자란 소나무 낙락장송(落落長松)도 근본은 종자(種子)라고 한다. 발아를 기다리는 문학의 씨앗들을 잘 가꾸기로 마음먹는다.

전화선을 뽑고 하루 열 시간 책상에 앉아 0.75매씩 글을 써내는 오

르한 파묵 소설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농부의 마음으로 짓는 글은 비바람을 맞고 눈물 먹은 어둠의 시간에서 움트는 것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마당.....



❶시마당❶

이름의 이름 외 1편 | 김종애
물고기 돌 외 1편 | 최서진
시를 매달다 외 1편 | 박상미
마음이 데인 자리 외 1편 | 하시현
조약돌 외 1편 | 최윤정
싸움 구경 외 1편 | 조하은
화곡역 6번 출구 옆 외 1편 | 윤현숙
정원을 거닐며 외 1편 | 문순심
순서 외 1편 | 최영엽

❶수필마당❶

아버지가 주신 세뱃돈 | 류순이
그날의 여정 | 이종주
옥상 정원 | 박문자

❶소설마당❶

운수 좋은 날 | 백지영

❶기행문마당❶

이집트의 백사막과 흑사막 | 한경

이름의 이름 외 1편

김 종 애 | 시인

숲속 오두막에서
꽃 사진이 왔다

이름을 묻는다

쭉부쟁이와
안개 자욱한 개망초

궁금한 것이
이름인지
꽃인지

베란다에서 우는 벌레

장독 뚜껑에 쏟아지는 빗소리

문득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

제 이름
알지 못한 채

밤은

시를 잊으라
어둠 속 나무끼는
꽃의 언어들
되살아오는 얼굴들

어디론가 흘러가는 물소리

촛불을 끄자
빨간 사루비아
일렁이는 벽
동생 엮은 엄마 그림자
홍역에 들뜬 몸 위로
천천히 내려오던 천장

도리질해도
촛불은 살아나고
나는 깨어 있어
월 새 없이 일어서는 헛바닥

살아 있어
죽지 못한 언어들

누군가 엿듣는
나의 숨소리

김종애

2011년 《문학과 의식》 등단, 시집 『거짓말 통조림』, 『귀를 두고 간 겨울』

물고기 돌 외 1편

최서진 | 시인

누군가 둥글고 매끄러운
돌에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 나에게 주었다

손으로 물고기를 만져 본다

심장이 흘러가는 소리가
두근거리는 손끝

정성껏 물을 갈아주고
물 안에 물고기를 풀어 준다
흘러가는 지느러미

그것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약속도 없이 걷게 한다

책을 보는 나를 물고기가 바라본다
자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돌 속을 헤엄쳐 다니는 저 물고기처럼
슬픔이 웃는 얼굴로

돌 속에 내가 갇힌다

동백은 추락할 때 가장 선명해져요

동백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나무에 침묵이 가득 찼어요

부풀어 오른 동백 우주선을 타고
입을 조금 벌리면 앞앞마다 구름이 돌아요

나는 사라질 시간의 이름을
물구름이라고 불러요

점점 희박해지는 숨을 몰아쉬며
붉은 숨을 떨어뜨리듯

동백은 추락할 때 가장 선명해져요
소금 같은 시간을 따라 우리는 흩어지고 있어요

나는 떨어진 동백 안에 누워 봅니다
꽃잎을 들추면 고래의 시간이 거기 있다는 듯이

소란해지면서 소금이 돌아 물무늬를 불러모은 걸
모든 고요 위에 다시 피는 동백

최서진

2004년 『심상』 등단, 문학박사, 2018년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수혜, 2019년 문학 나눔 우수도서 선정, 김광협문학상, 발견문학상, 시집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가 되고』, 『우리만 모르게 새가 태어난다』, 『내 사람은 눈물보다 먼저 녹는다』

시를 매달다 외 1편

박상미 | 시인

아픈 게 제일 서럽다던 어머니는
검은 글자로 콕 콕 아픔을 찍는다
새의 부리가 지구를 찍는 건
먹고 살자고
어머니의 붓이 종이를 찍는 건
아픔을 덜자고다

그렇게 적은 시
자꾸 내게 보낸다
벽에 매달아 놓고
사진을 찍는 동안
환자들은 실에 매달려
움직이는 동극처럼
움직이는 입체가 된다
아픔이 살아서 홀로그램이 된다
검은 글자 위에 무지개가 박힌다

배고픈 시

내 서사는 너무 짧은 것이어서 단발머리처럼 목을 덮지 못한다
 국수 가닥처럼 길게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하고 툭 툭 끊기는
 호흡이 짧아 미처 다 불지 못하는 풍선처럼
 다 부풀지 못해 더 높이 하늘 위로 등실 떠오르지 못한다
 더 깊이 땅을 파지 못해 새끼를 더 낳지 못하는 두더지처럼
 힘이 닿지 못해 멀리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지 못하는 철새 떼처럼
 조바심을 내면 오지 않는 느긋한 너에게 배가 고프다
 허기가 저서 바다로 간다
 해를 보고 눈을 맞추어도 해를 다 알지 못하고
 바람을 맞아도 바람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잉크를 다 쏟아 보아도
 흰 종이 한 장을 다 적시지 못한다

박상미

1999년 《창조문학》 등단, 2000년 『자연의 본성, 자연의 육화』로 비평 등단, 시집 『수목원에 서 온 편지』, 『비눗방울 성운』, 『마음이 데인 자리』

마음이 데인 자리 외 1편

하 시 현 | 시인

산동네 아궁이 가득 들어찬 장작이 탄다
불꽃이 깃발같이 펄럭인다
훽훽 춤사위 불이 시원하다
펼 펼 끓는 불꽃에 들려올린 가마솥
요지부동 묵직하니 뜨거움에 익는다
내 심령이 자주 데이는 불꽃 같다
이른 새벽 새벽별에도 데이고
바알깡게 물든 단풍잎에도 데이지만
자주 데이는 것은 아버지라는 말이다
내게 언제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던가
마음 편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었던가
순간순간 나를 불꽃같이 태워
오월 장미보다 더 붉게 데인 자국
그 흔적 그대로 즐겁다
그 뜨거움과 두툼하게 맘에 엉겨 붙은 자줏빛 생채기
덕지덕지 그것은 사랑이다
넉넉한 보혈의 손길이다
핏빛 용서다

꽃

이슬로 목을 축이는 꽃이 될래요
 몸이 부시게 내리는 봄빛 좋구요
 비 갠 뒤 제 모습 더욱 밝히는 꽃이요
 키에 차도록 넘치는 장마도 괜찮아요
 찬 서리에 몸이 저리는 어눌한 몸짓도 내게 딱이에요
 겨울을 건디기에 좋은 작은 키도 좋구요
 제 밖의 모습으로 꽃이 아닌
 제 마음에 들어 꽃이 아닌
 스스로 믿기지 않는 풀이라 해도
 눈길 맘길 주는 이 없어도
 제 이름에 취한 풀꽃입니다
 실없이 죽어 가는 꽃이 아니라
 다시 올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물 올리는
 누구의 발밑에 밟혀 꼬부라져도
 금세 고개 뺏뺏이 들고 일어서는
 시나브로 즐거운 죽음을 사는
 풀꽃입니다

하시현

1990년 《현대시》 등단, 시집 『토큰 하나로 버스를 타자』, 『도둑 여행』, 『나무 자세』 등

조약돌 외 1편

최윤정 | 시인

아름다움 중독증을 가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상자에 질문지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궁금한 채로 남겨 두기로 합니다

아름다움 중독은
잠수하기 직전의 수련 낮빛 스치는 붉은 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약돌의 줄무늬처럼 한꺼번에 숨을 들이키고 물속으로
사라지는 맥박까지 붙잡습니다

물살로 얼룩진 조약돌을 함께 넣었지요
가짓빛 얼룩은 꽃 피지 않고
자라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펴려이지 않는 저녁이면
대답이 없을 상자를 두드려 봐요
줄무늬 조약돌에게 해 줄 말은 남아 있지 않지만

골목길 가듯처럼 깜박거리면서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을 묻기도 전에
막다른 길목에서
미래의 갈피를 뽑아 버린 날

바늘 꿈을 꾸었어요
손가락들 깊숙이 꽃혀 있는 바늘을 뺀다고
아프거나 시원함은 없었지만 작은
핏방울이 손가락마다 남았어요

땀지 않은 핏방울이
검은 나방이 되어 날아가는 순간에도 아프거나 시원함은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이제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소천하신 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가자는 말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즈음
혼자 앉아서 상자를 마구 흔들었어요
거센 파도 소리에 맞춰
맘이 제각각 펄럭이는 날

조약돌은 말이 없었고

여전히 아프거나 시원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그러졌다가 팽창하는 상자 쪽으로
혹은 바람 쪽으로

낮선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저 그런 낯

페인트칠을 벗겨 내면 시멘트가 나오고

시멘트는 많은 구멍을 지녔다

구멍마다 명도가 다르고 그것은 깊이가 상관한다

무화과 열매가 사라진 자리

빗줄기 왔다 간다

구멍으로 남으려면 기댔 곳이라도 있어야겠는데

가까스로 붙어 간 바람은 뒤엀킨 채 공중을 맴돌고

시멘트를 떼다가 설거지 스펀지를 찾는다

스펀지가 갖는 몸의 전부가 구멍일 때

그것은 생략

슬픔이 감각되지 않는 순간만 남았을 때

그저 그런 대낮

그저 그런 일들만으로도 숨은 가빠 오고

가까스로 세운 키로

스편지를 선반에 올린다

최윤정

2014년 《작가세계》 등단, 대산창작기금 수혜, 시집 『공중산책』, 『수박사탕 근처』, 『그는 세 뺨 옆에서 책을 읽습니다』

싸움 구경 외 1편

조 하 은 | 시인

며칠을 피뿔던 눈 잠시 그치고
선심 쓰듯 나뭇가지에 햇살이 들어앉은 오후

까마귀 몇 마리 까 악 까악 울어대자
까치들 떼로 몰려와 싸움 걸어대는데

후드득 날아갔다
푸드득 날아왔다
나뭇가지 사이로
눈 쌓인 지붕 위로
셀 수 없이 까맣다

치고
받고
물고
뜯고
끝이 없는데

도시에 두고 온 미련이 참으로 미련하다고
수제비 뜨다 말고
새들 싸움 구경에 냄비만 하릴없이 칩폭거린다

고라니

새끼를 놓쳤는가
밤새워 들리는 고라니 울음소리

술 한 잔 드시면 부르던 노래가
아버지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숨죽여 우는 법을 배워 버린 후에야 알았다

새들이 날아가던 길을 멍하니 바라보다
허물어진 마음을 쓰다듬는 밤
오늘은 고라니가 되어 왁 왁 울어 본다

울지도 못하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비처럼 내렸다

조하은

2015년 《시에티카》 등단, 시집 『얼마간은 불량하게』

화곡역 6번 출구 옆 외 1편

윤현숙 | 시인

여름 오기 전 호떡 팔던 아저씨
지금은 꽃을 팔지
흑장미 무더기 조리개 물 머금고
어여쁜 숙녀처럼 꽃단장 하지

새끼 잉어 닮은 붕어빵 3개 2,000원
이름만 참쌀인 호떡 1개 1,500원
하늘이 온통 우울해질 때
붕어빵 열기에도 호들갑스럽던
떨어지는 달콤한 설탕물에 찰지게
아해들 웃으며 지나가지

기억은 빵틀 속 호떡처럼 부풀고
떨어져 간 얼굴
삶의 판을 달구어 주지
작열하던 태양
고층 빌딩 아래 사라지고
호떡이 익어 가던 좌대 위

어여쁘던 장미 시들어 가지

3,000원 몽땅 떨어!

장미꽃 웃고 있지 가난한 손을 따라가며

겨우내 콧등이 빨갛던 아저씨

오늘은 장미꽃 팔고 있지

낙과

어머니, 어제는 입추였는데요, 가을이 오는 날이랑인데요
폭염에 버티지 못한 어린 감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소낙비에 후드득 떨어졌구요
감나무 가지에 여남은 감이 달려 있는데요
세차게 바람이 불면 또 얼마나 떨어질까요
감이 빨갛게 익을 때까지 이 방에서 살고 싶은데요
이상도 하지요
누구는 월급이 몇 천이구요, 누구는 퇴직금이 몇 억이랑인데
저는 왜 20만 원 월세에도 허덕일까요

말씀하셨지요.
오빠가 잘되면 모든 게 잘될 거라고 저는 오빠가 잘되길 빌어요
그래야 집이 필 테니까요
오늘도 밥 대신 막걸리 한 잔을 마셔 봤어요
어두운 방에 있어도 몽롱하니 꿈꾸는 것 같아 무섭진 않아요
근데요 자꾸만 잠이 와요
허기가 싫어 자려는데요 머리맡에 막걸리 병을 치우질 못했어요
잠이 길어지면 술꾼이라 의심할까 봐 걱정이 돼요

서른 넘도록 술은 잘못 하거든요
떨어지는 감처럼 힘이 부쳐서 술 힘을 빌렸을 뿐인데요
어쩌면 잠이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요.

※24년 8월 7일 양천구 신월동 지하방에서 30대 여 사망(알코올 중독으로 추정
됨) 뉴스

윤현숙

2016년 《심상》 등단

정원을 거닐며 외 1편

문순심 | 시인

니가 내 꿈의 정원으로 와
세를 넓혀 나가는 동안
난 문뜩문뜩 파란들※ 병뚜껑을
만지작거리다가도

저 쓰르라미 쓰라린 절규와
밤이면 귀뚜라미 달빛 합창과
청개구리 눈망울에 어린 우수

햇살은 다투어 따사롭고
바람결 이다지도 살가운데
난 차라리 니 앞에
하얀 깃발을 펼치겠어

어디선가
반딧불이 한 마리 휘리릭
어두운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파란들: 잔디 전용 제초제

가끔은

‘오매~ 맹년 풀까지 뽑고 앉아 있네’
 해거름에 갈 길 바쁜 동네 아집
 애가 타신다

본능처럼 전장에 뛰어든 초로의 여인
 붓 대신 들어올린 서툰 호미질
 고향은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기생오라비 같은 열무밭 곁으로
 오이꽃 가지꽃 눈부신 호박꽃
 박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봄날은 저 혼자서 잘도 가는데
 진종일 뭐가 그리도 켕기는 걸까?
 숨넘어가는 빠꾸기 녀석

멀리서 대충 보아야 예쁜
 남도의 전원생활

가끔은
꿈꿀 때가 더 아름다웠음을

문순심

《순수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필 동인, 영랑문학상 수상, 시집 『덤』

순서 외 1편

최영엽 | 시인

청량리 청과물시장
한 바퀴 빼잉~ 둘러보고
오늘 과제 1호
아내가 사 오라는
최상급 레몬 한 바구니 산다
별이 좋아하는
왕딸기 한 팩 사고
아내 좋아하는
사과 두 알 사고
파프리카 4개, 브로콜리 2개 산다
마지막으로 내 주전부리
볶은 땅콩 한 주먹 사 든다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게지
손주와 아내와 그다음이
내 순서인 게지

그땐 그랬지

젊은 연인처럼
젊은 부부처럼
걸을 땐 나란히 서서
두 손 살포시 잡고 걸었지
그땐 그랬지
어쩌다 그녀가
헤헤 웃으며 내게 다가와
팔짱을 끼어줄 땐
물컹한 젖가슴이
팔뚝에 달라붙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듯
마음 심쿵했었지
그땐 그랬지
나이 들어 이제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심한 듯 살아가지만
두 손 잡지 않아도
팔짱 끼지 않아도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느낌
그 맛으로 사는 게지
가을 서릿발에
한풀 꺾인 풀처럼
서로 여리어진 숨소리
들어가며 사는 게지

최영엽

《문학, 상(像)》등단

아버지가 주신 세뱃돈

류순이 | 수필가

설날 아침에 친정아버지는 어머니가 쓰시던 화초장을 열고 세뱃돈을 꺼내 주셨다.

십 년 전 친정어머니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하셨다. 임종을 지키던 아버지와 자식들은 어머니 유언을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들었다. 어머니는 슬프디슬픈 눈빛과 소리 없이 달짝이는 입술로

“아버지를 부탁한다.”

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그 구슬픈 눈빛을 잊지 말라는 듯 아버지는 꼬박 일 년을 병원에서 보내셨다. 시름시름 앓다가 의원에서 병원, 병원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까지 가셨을 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가시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은 나를 바라보셨다.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다시 맞은 설날 아침이었다. 명절에 모든 남매가 모인 적이 손꼽을 정도였는데, 그해에는 용케도 칠남매가 모두 모였다. 세배를 드리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화초장을 열더니 준비해 둔 흰 봉투를 하나씩 주셨다. 내용물이 비칠 듯 말 듯 얇은 봉투였다. 봉투를 받을 때는 오만 원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일만 원을 봉투에까지 넣어 주실까? 의아스러웠다.

호를 ‘하정(夏亭)’으로, ‘한량’과 ‘놀부’를 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답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때 제일 먼저 봉투를 열어 본 막내의 고성이 들렸다. 갑자기

“아빠!”

라고 외치며 놀란 토끼 눈을 한 막내를 보고 일제히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십만 원짜리러니 하고 수표를 꺼냈는데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아니다. 무려 일곱 개다. 일천만 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세뱃돈이다.”

무표정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말이인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서는 돈이 효자라는 시쳇말이 떠올랐다.

‘앞으로 어찌려고 이러실까, 쓸 돈은 남겨 놓았을까? 농촌에서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찰나였지만 머리를 스치는 생각들로 이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뒤를 이었다. 나는 동생들이 들고 있는 봉투를 빼앗다시피 하여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 노후에는 돈이 효자래요. 갖고 계세요.”

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돌려 드리자, 아버지는 뿌리치시면서

“죽을 때까지 나 쓸 돈은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밖으로 나가셨다.

순간 손에 든 일곱 개의 봉투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이 차별 없는 세뱃돈을 어찌면 좋단 말인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뜻밖의 상황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을 깨고 내가 말했다.

“이 돈은 돌려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 같으니, 앞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라며 다시 봉투를 나눠 주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셨다. 자식들 눈에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금슬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진짜 한량처럼 바깥 생활이 많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는 평생을 들에서 보내셨다. 씨 뿌리고, 모내기 하고, 추수하셨다. 틈만 나면 밭에 나가 김을 매셨다. 뽕고 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풀을 시시때때로 뽑았다.

어머니가 일꾼 논밭에는 갖가지 곡식과 채소가 많았다. 계절 따라 돌려 심기를 하여 겨울철을 빼고는 땅을 놀리지 않으셨다. 논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밭에는 보리, 콩, 팥 등의 곡식을 비롯하여 무, 배추, 오이, 가지 같은 채소와 참깨, 들깨, 마늘, 고추 따위 양념감도 심었다. 밭 가장자리에는 옥수수과 수수를 심고, 담벼락을 따라서는 호박과 박넝쿨을 올렸다. 가끔 단수수를 심어 즙이 많은 수숫대로 우리 간식까지 조달하셨다. 고기와 생선을 빼고는 밭에서 자란 제철 채소로 자급자족했다.

어릴 때는 헛간 옆 우리에 돼지를 키우고, 한쪽 마당가에는 닭장이 있어서 계란도 사 먹지 않았다. 도시락에는 달걀부침이 하나씩 장식되었지만, 닭장 청소할 때 닭을 풀어놓으면 사나운 수탉이 나를 쫓아다니며 쪼려고 했다. 어른들은 내가 하도 작아서 닭도 깔본다고 놀렸지만, 나는 무서웠던 닭과 함께 남과 다른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는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추억이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꽃 같은 나이에 시집와 시부모, 시조 부모까지 모시고 살면서 삼시 세끼를 챙기고 논밭에 일을 나가셨다. 거기다 명절과 제사를 합치면 한 달에 한 번꼴은 되었다. 정성을 들여야 후손이 잘 된다고 하시며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어린 눈에도 존경스러웠다. 절없는 나는 제사 때마다 대소가에 떡을 나누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그때는 떡을 방앗간에 가지 않고 집에서 쌀을 찌서 직접 만들었다. 마당에서 놀다가 쿵더쿵쿵더쿵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면 절구통 주변에 모여들어 덩달아 박자를 맞추며 놀기도 했다. 뭇쌀은 절편이 되고 찹쌀은 인절미가 되었다. 떡살을 누르면 나오는 무늬가 재미있어 떡살을 눌러보겠다고 떼를 쓰다가 떡살 밖으로 밀려 나온 절편이 되지 못한 떡을 참기름 발라 고소하게 맛보았던 재미가 그립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떡 가게 앞을 지나게 되면 절편을 산다.

내 나이 벌써 경로 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도 4대가 모인 대가족으로 살았던 친정이 돋보이는 추억으로 되살아난다. 그것은 오로지 인내 하나로 여자의 일생을 살아내신 어머니의 희생이었다고 본다.

아버지는 이제 88세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셨다. 어머니가 가신 후 퇴원 후에도 한 삼 년 시난고난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더니, 털고 일어나서 농촌 생활을 슬기롭게 잘하셨다. 게이트볼 심판 자격으로 전국 대회를 다니다가 한궁 심판 자격을 따서 올해 4월까지 노인 일자리를 다니셨다. 먼 노인회장을 4년이나 하고, 이어 경로당 회장을 하다가 지난해 모두 내려놓으셨다.

집에 계실 때는 텔레비전을 친구처럼 여겼다. 가는 귀가 어두운 아버지는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신다.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자식들이 가면 세상사로 대화하신다. 엄마 계실 때는 물도 한 번 스스로 뜨지 않으신 분이 살림을 너무도 깔끔하게 잘하신다.

친정 논밭은 어머니 가신 후 10년째 묵고 있다. 논은 멀리 있어도, 마당에서 옆 사립문만 열면 밭인데 아버지는 밭에 안 가신다. 밭을 외

면하면서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지우려는 것일까?

췌장암 진단을 받고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 버린 어머니가 처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가신 어머니가 아픈 가슴만큼 미웠다.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세뱃돈으로 면역 건강 식품을 꾸준히 사드렸다. 원금은 손익분기점을 지난 지 오래지만, 친정에 갈 때가 되면 잔액을 헤아릴 수 없는 내 마음의 화초장을 열고 백화점으로 간다. 화초장에는 유년 시절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인정을 소중히 여겼던 친정 분위기와 고향의 자연이 들어 있다. 돌아보는 세월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넉넉해진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화초장을 남길까.

류순이

《문학, 상(像)》등단, 스마트폰 강사, 온라인홍보마케터, 여행작가, 공저 지역살이 가이드북 『강릉에서 살아보기』, 『인제에서 살아보기』, 『고령에서 살아보기』, 『걸어서 만난 세계시민』

그날의 여정

이종주 | 수필가

그해 여름, 가족과의 유럽 여행은 40도 가까운 불볕더위로 힘들었다. 당시는 새로 옮긴 직장에 나름 적응해 가고 있을 때였다. 미국 유학 중이던 동생 집에 한동안 머물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갑작스레 유럽 여행 일정을 잡았다. 늘 집에서만 보던 동생과 어머니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만나는 느낌은 반갑고도 색달랐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한적한 하이델베르크역에서 성까지 걸으며 청록의 가로수와 깨끗한 잔디가 펼쳐진 골목골목을 누볐다. 노천 카페에서 브런치로 빵에 꿀을 발라 먹다 벌에 쏘이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그것마저도 새로웠다.

작은 돌로 포장한 성 밑 구시가지를 걸으며 느긋하게 맥주 한 잔 즐기기도 했고, 기념품 가게를 신기한 듯 기웃거리기도 했다. 푸니쿨라를 타고 오른 하이델베르크 성은 여기저기 전쟁으로 파손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더 실감이 났다. 복잡한 성 안을 중세 영주인 양 걸으며, 커다란 와인 통과 유럽 전통 의학에서 쓰던 약초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에서 내려오는 길에 본 정경은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하이델베르크 시내를 유유히 흐르는 네카어강과 그 양안에 펼쳐진 수풀은 이국적이면서도 웬지 고향 뒷산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자전거를

타고 일요일 오후를 즐기는 많은 젊은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카를테 오도어다리에서 사진도 찍었다. 비슷한 경관은 프라하나 잘츠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시 가족과 함께 느꼈던 하이텔 베르크의 한적함과 포근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함께한 가족 여행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지만, 혼자 했던 여행들도 색다른 경험으로 남아 있다. 혼자 하는 여행인 만큼 실수가 없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고, 교통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긴장해야 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온전히 관찰하고 즐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수년 전 네덜란드 여행도 그러했다. 그때 전공 분야의 새로운 술기(術技)를 습득하기 위해 로테르담의 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 주간의 소그룹 실습 교육을 신청했다.

교육 시작 하루 전날, 암스테르담에 미리 도착해 시차 때문에 졸린 몸을 이끌고 고풍스러운 시내 구경을 할 수 있었다. 4월의 따사로운 어느 봄날, 암스테르담에는 마침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가 운하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에 바라보는 나도 행복감에 젖었다. 긴 줄이 늘어선 반 고흐 미술관을 한국어 오디오를 들으며 관람하고, 거리 악사들의 공연도 들었다. 튜립이 활짝 핀 광장을 걷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마요네즈에 찍어 먹던 두껍고 부드러운 네덜란드식 감자튀김도 별미였다.

교육 기간 중 유럽 조간신문 1면 톱 기사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및 핵 개발 관련 소식이었다. 1면 대부분을 차지한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한 나는 사실 이러다 귀국 못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잠시 들기도 했다. 다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 온 수강생이 남한과 북한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웬지 딱딱해 보이던 그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닮아 보이던 프랑스인 수강생, 한국을 좋아한다며 내게 손가락 하트를 종종 날려주던 터키 수강생, 여러 언어에 능통한 스페인 수강생 등도 어렵듯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배웠지만, 같은 직업인으로서 서로의 애환도 이해하고 관심사도 공감할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은 끝없는 바다였다. 운하가 끝나는 해안가, 지평선에 이어진 수평선, 또 여기에 맞닿은 시퍼런 하늘, 그리고 아직 싸늘한 북해의 바람이 자연의 웅장함을 새삼 느끼게 했다.

세월의 흔적을 품은 옛 성을 끼고 인간사 아랑곳없이 흐르던 하이델베르크의 강물, 마침내 푸른 하늘과 맞닿았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바다는 내 앞에 펼쳐질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일깨워 주는 듯했다.

언젠가 그런 특별한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온다 해도 그날의 젊음이 아니듯 그날의 그 느낌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여행이 미래의 여행과 같은 느낌일 수 없듯, 앞으로의 삶도 지나온 젊음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상의 반복에 젖어 다가올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할 때 그날의 여정을 떠올려 본다. 그때마다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여행이 주는 특별한 힘일 것이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보면, 그때 만났던 프랑스 수강생 친구가 생각나곤 한다. 그들 모두 잘 지내고 있겠지.

이종주

《문학, 상(像)》등단, 의학박사, 서울대병원 안과 수료 및 각막·백내장 임상강사,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전문의

옥상 정원

박문자 | 수필가

3년째 주유소 옆 조그만 공간에 여러 가지 꽃과 채소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방치된 옥상도 잔디나 채소를 심으면 무더운 여름 아래층 사무실 냉방 효과도 낼 수 있고 저녁 시간 의자라도 갖다 놓으면 밤하늘의 달이나 별들도 볼 수 있겠다 싶어 바닥에 방수액을 바르고 이른 봄부터 옥수수,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었다.

콩이나 수수 등 집에 있는 잡곡을 이때다 싶어 한 줍씩 뿌렸고 흙을 나르는 일은 부엽토, 피트모스를 섞어 좀 가볍게 해서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조금씩 운반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채소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렸는데, 왜 좀 더 일찍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도 됐다.

아침에 물 주러 가보면 심지도 않은 나팔꽃이 호박꽃, 붓꽃 등과 어울려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조화를 이룬다. 과일 상자에 심은 고추, 가지, 토마토 등도 제 몫을 다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신기해서 세어 봤더니 고추나무 한 그루에 붉은 것은 17개, 파란 것은 3개나 되며 다른 나무도 비슷하다. 키 큰 옥수수가 울타리가 되고 호박, 박, 나팔꽃 넝쿨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여기 정원을 좋아하는 회원들 6명이 매달 있는 시낭송회 모임을 옥상 정원에서 가졌다. 널빤지로 만든 식탁에 하

얀 보를 깔고 늪어 가는 중년의 여성들이 재미를 짜내기라도 하듯이
약속대로 반바지 차림에 과일을 하나씩 가져왔다.

넓고 큰 통에 얼음물을 채우고 내가 먼저 수박, 토마토, 오이를 넣고
그다음 회원들이 가져온 메론, 복숭아, 참외 등을 넣으니 그 자체가 형
형색색의 꽃밭 같았다.

어둠이 깔리자 평소 아끼고 사 모았던 초들을 밝히고 깨진 항아리에
는 시골 모닥불처럼 말려둔 쭉을 태우면서 모기를 쫓았다. 어떤 이는
자작시를 또 어떤 이는 책에 실린 자신의 수필을, 나는 평소처럼 감명
받은 글귀들을 읽었다.

옥상의 시원함, 촛불, 과일, 시 등이 우리를 꿈 많던 여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는 시간의 풍선을 태운 것 같았다. “잠깐인가 했더니 벌써 시
간이 11시 30분이래요.” 남편 허락은 받았지만 다음 주엔 도자기 빚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한 회원의 말을 뒤로하고 서둘러 헤어졌다.

9월의 마지막 목요일 긴 여운이 남은 즐거운 저녁 한때였다.

박문자

《문학, 상(像)》등단, (주)책한권 운영, (주)Rico 상임고문, 도·농간의 교류와 세대간 소통 모
임, 우리 마을 가꾸기 금상 수상(한국일보, 여성건축가협회 주최)

운수 좋은 날

백지영 | 소설가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저만치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스치듯 눈이 마주쳤을까. 웬지 남자가 화들짝 걸음을 멈췄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나도 덩달아 걸음을 멈췄다. 마스크 위로 떠 있는 눈에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아는 사람일까. 눈에 힘을 줘 커다래진 눈을 쏘듯이 봤다. 마스크 때문인지 눈과 얼굴이 영 낯설었다. 하지만 남자는 분명 나를 아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유난히 깊은 눈동자가 어디서 본 것도 같았다. 기억을 더듬고 마스크에 가려진 나머지 얼굴을 상상했다. 그 사이 남자는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무슨 일이냐는 의문의 뜻이었다. 겁에 질린 듯한 남자를 안심시키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데 남자는 오히려 뒤를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내 걸음이 빨라졌다. 나는 어차피 가려던 방향이었다. 걸음을 빨리 한다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슬쩍 뒤를 돌아본 남자가 빨라진 내 걸음에 소스라치며 아예 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남자가 나를 보고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쫓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를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망가는 이유는 알고 싶었다. 한참이나 달린 남자는 건물을 끼고 모퉁이를 돌았다. 마침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

와 있었다. 남자는 횡단보도를 바람처럼 건넜다. 깜빡이는 파란불을 보니 굳이 길을 건너야 할까 싶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지러운 기억 속에서 마스크 위에 떠 있던 눈이 불쑥 튀어나왔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떨미를 하듯 속까지 메스꺼웠다. 하지만 흐트러지려는 정신 줄을 붙잡았다. 그 사이 사내는 길을 건너 한참이나 떨어진 상태였다. 눈에 힘을 쫘다. 이를 악물었다. 두 손을 꼭 쥔 채 깜박이는 파란불에도 몸을 날려 횡단보도를 건넜다.

숨이 찼다. 거리의 사람들 때문에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앞서가는 남자도 다르지 않았다. 몇 번인가 사람들과 부딪치느라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내 위치를 확인했다. 내가 더 가까이 온 걸 본 눈에 절망이 담겼다. 숨이 찬지 남자는 마스크를 벗어 손에 쥐었다. 방향을 트는 걸 보니 또 길을 건너려는 모양이었다. 앞쪽 길을 건너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남자를 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낭패감이 몰려왔다. 나도 마스크를 벗고 뛰는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도로로 내려서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느라 잠시 한눈을 팔았을까. 갑자기 남자가 눈에서 사라졌다. 무슨 일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귀를 찢을 듯한 굉음에 걸음을 멈췄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비명이 폭풍처럼 도로로 쏟아졌다. 널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사라진 도로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었다. 트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천천히 사람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손에 쥔 마스크를 다시 찼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가 꽤 멀어 보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이 걸리지 않았다. 아니 걷기가 두려웠다.

사이렌이 울렸다. 구급차가 오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며 길을 텅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곧 남자가 들것에 실려 차로 옮

겨졌다. 다시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차가 오자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다. 사람들 사이로 푸른 제복이 보였다. 경찰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뒤를 돌아 내가 서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경찰의 눈이 남자의 손끝을 따라 내게로 왔다. 화들짝 몸을 돌렸다. 그새 내려간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올렸다. 걸리지 않는 걸음을 옮겨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모여든 사람들을 헤치며 한참이나 걸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날은 운수가 꽤 좋은 날이었다. 금방 끝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라는 낯선 병균은 참으로 끈질겼다.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하루하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규제가 조금은 완화됐지만 한번 사라진 손님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비어 있는 테이블을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고작 한두 팀이었지만 그나마도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은 네 팀. 그 다음날은 포장 손님도 꽤 있었다. 하지만 적자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날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줄을 이었다. 점심 땀 거의 만석이었다. 포장 손님까지 합치면 몇 달 동안 다녔던 손님보다 많은 것 같았다. 갑자기 많아진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알바도 없이 혼자 버텨온 지 벌써 일 년째였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상대하려니 알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손님들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알바를 무턱대고 쓸 수는 없었다. 뜨내기들을 불러 봤자 일이 서툴러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전에는 틈틈이 아내가 도왔지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부를 수도 없었다. 젓먹이를 맡길 데를 찾기가 쉽지 않을 터였다. 갑자기 많아진 손님에 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

다. 그런데 손님들 대부분이 썬페이로 계산을 했다.

“썬페이 되죠?”

손님들은 대부분 계산대 앞에서 그렇게 물었다.

“그럼요. 되고말고요.”

계산을 할 때마다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손님이 는 게 아무래도 썬페이 때문인 모양이었다. 손님들 중 대부분은 들어오며 썬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니라고 하면 뒤도 안 보고 나갈 것 같은 표정이었다. 썬페이를 쓰겠다는 손님들은 씹씹이도 컸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비싼 것만 골라 시키는 것도 같았다.

사실 상가 회장이 썬페이 가입을 권유했을 땐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런 걸 가입할 때마다 따라오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걸 가입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기도 했다. 하지만 상가 회장의 권유로 주변 상인들이 모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 나만 따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마침 유명 여배우가 홍보하는 광고가 방영되기도 했다. 회장 말을 들어보니 소비자 입장에서선 나쁘지 않은 결제 수단인 것 같았다. 가맹점에서 결제시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상당했다. 썬페이를 미리 사두고 할인율을 적용해 결제를 하는 방법이었다. 만 원짜리 물건을 팔천 원 미만으로 사는 효과였다. 수수료가 썬 편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썬페이를 많이 쓰면 가맹점 입장에서선 나쁘지 않았다. 광고가 나간 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썬페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와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1천억에 가까운 썬페이가 팔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열풍이라니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손님을 모으는데 딱히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역시나 가입 후 일 년 넘게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코로나로 손님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상가 회장에 게도 썬페이 측에게도 문의를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이 없는 게 코로

나 때문인데 어찌겠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할 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

그런데 드디어 효과가 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모델인 배우가 새로 드라마를 시작한 때문일까. 간만에 꼭 찬 테이블을 보니 눈물이라도 날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오세요. 썬페이 결제 언제나 환영입니다.”

순간 학생티를 갖 벗은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도망치듯 가게를 나서는 모습에 저렇게 숫기가 없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싶었다.

숫기 없는 손님이 나간 후 이제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생각했다. 간만에 손님이 많은 날인데 일찍 문을 닫긴 아까웠다. 하지만 형 내외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엄마가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떼를 쓴다는 것이다. 요양원에 있는 엄마 얼굴을 본 지도 벌써 몇 달째였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었다. 아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엄마는 전화기에 바짝 얼굴을 대며 이렇게 보면 됐지 올 것 없다고 했다. 그저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떼를 쓴다는 것이다. 요양원 말로는 기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딱히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밥도 안 먹으려 한다고 했다.

“이번 면회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너도 시간 꼭 내라.”

코로나로 대면 면회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요양원 측에서 따로 면회실을 만들었다. 유리 칸막이로 막혀 손도 잡을 수 없었지만 얼굴은 볼 수 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나왔다.

“나는 가게 일찍 접고 갈 테니까 형은 먼저 가.”

면회 날이 일요일이라고 했다. 어차피 장사는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종일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손님도 없을 테니 점심 손님만 받

고 엄마에게 갈 생각이었다. 일찌감치 안내판도 문 앞에 붙여 놔다.

남자는 손님들이 나가고 이제 문을 닫아야지 생각할 때쯤 가게 문을 열었다. 파장임을 느꼈는지 남자는 쭉쭉뻗뻗 들어서며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저 죄송한데…”

사정이 있어 문을 닫을 거라 말하려 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모와 여자아이가 들어섰다. 뒤이어 여자 하나도 들어섰다. 일행인지 남자는 테이블 하나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가서 앉으라고 했다. 뒤에 들어온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았다. 여자를 말리고 싶었지만 노모와 아이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남자가 물었다.

“썬페이 되나요?”

남자는 꼭 그것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듯 핸드폰을 들어 보았다. 언뜻 봐도 가지고 있는 페이가 꽤 많았다. 남자는 돈을 쓰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것도 내 가게에서.

“네. 그럼요.”

나는 결국 그렇게 말해 버렸다.

가족과 함께 자리에 앉은 남자는 서둘러 메뉴를 정했다. 먹고 갈 음식에 더해 포장해 갈 음식도 시켰다. 짐작대로 주문량이 꽤 많았다. 썬페이로 결제를 하겠다는 손님들은 주로 젊은 층이었다. 그들이 시키는 음식들은 가격대가 정해져 있었다. 양도 먹을 만큼이라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온 남자의 주문량은 상당했다. 뒤늦게 들어온 남자가 귀인처럼 보였다.

“덮밥은 맵지 않게 해주세요. 딸아이도 어머니도 매운 건 잘못 드시거든요.”

남자는 주문을 하면서도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떼를 쓴다는 엄마가 생각났지만 어차피 지금 당장 출발해도 늦었지 싶었다. 아무래도 다음 면회 날에나 가야 할 것 같았다. 엄마를 생각해 남자의 가족을 위해 음식에 더욱 정성을 쏟았다. 이미 문 앞에 안내판을 걸어놔 이후 손님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안내판을 떼고 손님을 더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받느라 재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남은 재료를 아낌없이 털어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사이 형과 형수에게서 번갈아 문자가 왔다.

“아무래도 나는 다음에 가야겠는데, 형이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줘.”

문자를 받은 형이 전화를 걸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노인네가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밥도 안 먹는다는데 그깟 장사가 문제냐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듣다보니 울화가 치밀었다. 자기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이 있으니 상관없지만 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형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해야 할까. 험한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간만에 장사가 잘 되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꺾꺾 눌러 참았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알잖아 형도. 언제 또 손님들이 올지 모르는데 오늘 한 번만 봐 줘. 엄마도 나는 다음에 가는 걸 더 좋아할 걸. 지금 당장 출발해도 밤에나 갈지 말진데 맨날 밤길에 운전한다고 뭐라 했잖아. 오늘은 형. 다음엔 나. 번갈아 자식들 얼굴 보면 더 좋지.”

내가 말하는 사이 형수가 옆에서 그냥 끊으라며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와서 보니 엄마가 안 좋으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형은 전화를 끊었다. 못마땅해 죽겠다

는 형의 말투에 마치 천하의 불효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 일을 구실 삼아 형이 또 얼마나 두고두고 밥맛없이 굴까 싶었다. 그동안 엄마를 모신다는 이유로 형과 형수의 위세는 대단했다. 생각하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 아니 간만에 손님이 있어 못 간다는데, 꼭 그렇게 엄마 얼굴이 안 좋다고 해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할까. 엄마 얼굴이 안 좋다니. 형은 늘 그렇게 말했다. 요양원에 간 후 어찌다 엄마 얼굴을 보고 오면 무슨 큰일이라도 있을 듯 말해 잠을 설치게 했다. 처음엔 형의 말에 속아 가게 문을 닫고 뛰어 내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식들에겐 꽤 끼치기 싫다던 엄마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었다. 관절이 안 좋다더니 어느 날부터 혼자서는 도저히 지내기가 어려워졌다. 나야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형네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형이나 형수나 엄마에게 살갑게 대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종일 가게에 매여 있는 몸인 줄 뻔히 알면서 형은 수시로 엄마를 맡아 달라고 했다. 식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형수가 몸살기가 있다며, 조카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됐다며, 이유도 다양했다. 그때마다 잠시지만 엄마를 집에 모셨다. 하지만 위낙 좁아 나도 엄마도 불편했다. 게다가 낮에는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엄마가 뇌출혈로 수족을 못 쓰게 되자 형과 형수는 기다렸다는 듯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내가 모실 형편이 안 돼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후 형과 형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이야 아이가 생겨 그렇지만 전에는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보러 갔다. 갈 때마다 엄마는 형과 형수 얘기를 했다. 보고 싶은 눈치였다.

요양원에 갔다 오면 늘 형에게 엄마 좀 들여다보라고 싶은 소리를 했다. 엄마 얼굴이 안 좋다고 말했던 것도 같다. 그리고 보니 형은 그때 일을 되갚고 싶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렇게 지난 일을 생각하며 씹씹거리는 사이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다가왔다.

“맛있게 드셨어요?”

남자는 대답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대답을 한 건 그의 노모와 아이였다.

“음식이 아주 맛있네요. 장사 잘 되슈.”

노모는 말을 하며 합죽한 입을 움직여 입맛을 다셨다.

“아저씨, 새우 덮밥 짱이에요!”

아이가 나를 보곤 엄지를 치켜들었다.

“고맙다. 다음에 또 와!”

아이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남자의 아내가 서둘러 노모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계산을 마친 남자에게 포장한 음식을 건네며 인사했다.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음식이 맛이 없었나. 가게를 나서는 남자의 표정이 어쩐지 우울해 보였다. 하긴 노모를 모시는 가장의 삶이 편키만 할까 싶었다. 나빠지려던 마음이 곧 가라앉았다.

남자의 가족을 보내고 정리 후 가게를 나섰다. 간만에 손님을 좀 받았더니 피곤했으나 오랜만의 운수 좋은 날이었다. 편의점에 들러 맥주 몇 캔 사가지고 가 아내와 마실까 생각하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형이었다. 맥주 생각에 좋아지던 기분이 가라앉았다.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분명 좋은 소리는 안 할 것 같았다.

“왜 또? 나는 다음에 간다니까.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순간 아차 싶었다. 형한테 다짜고짜 짜증이나며 더 큰 짜증이 날아올 것 같았다. 그런데 형은 한 숨을 크게 쉬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나는 잠자코 형의 말을 기다렸다.

“저기 있지… 장사 끝났으면 지금 엄마 보러 와야겠다.”

종일 문자와 전화로 했던 말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다. 평소처럼 한심해 죽겠다는 말투가 아니었다. 짜증이 묻은 말투는 더더욱 아니었다. 우리 형이 맞나싶게 따스하고 다정하기까지 했다.

“무, 무슨 일이야?”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덜컥 겁이 났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평소처럼 형이 짜증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빨리 와… 준형아… 응?”

형의 목소리에 물기가 얹혀 있었다. 술에 취한 걸까. 예전엔 술에 취하면 곧잘 울고는 했다. 하지만 엄마 보러 간 요양원에서 술을 마셨을까.

“뭐야? 왜 그러니까?”

형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한참 후에야 다시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좀 안 좋아.”

“무슨 소리야?”

형이 아무래도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분명했다. 우리 엄마, 거동은 좀 불편해도 단지 수족을 못 쓰는 정도였다. 이 시국에 형과 형수 같은 쌀쌀맞은 자식들도 단번에 불러들이는 사람인데, 그런 엄마가 대체 안 좋을 게 뭘까.

“병원을 옮겨야 한대서 급하게 옮겼어. 위치 보낼게. 그러고 빨리

와라.”

병원을 옮겼다니. 정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

“너, 장난치는 거면 죽어!”

나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 발길을 돌리는데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말 병원을 옮긴 모양이었다. 정신없이 달려 가게 앞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었다. 형의 말과 말투와 숨소리가 귓가를 끈질기게 맴돌았다. 제발 형의 장난이길.

간만에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 오랫동안 적자만 보던 가게에 손님이 북적인 날. 마지막으로 들어온 가족은 내가 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노모와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때려치우고 싶던 가게를 붙잡고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기까지 했다.

병원에 겨우 도착했는데도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했다. 읽히지 않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혹시 모른다면 푸른 방호복으로 중무장을 한 후에야 엄마가 있다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문 앞에 형과 형수가 보였다. 둘 다 나처럼 방호복을 입고 있어 처음엔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둘 다 울고 있었다. 나를 본 형이 말했다.

“엄마 가셨다, 방금.”

좁은 방 안에 엄마가 누워 있었다. 연속극에서나 봤던 흰 천을 머리 끝까지 덮고, 형은 방금이라는 말을 다시 했다. 조금만 일찍 오지라는 원망이 섞인 말이었다. 방금이라는 말이 가슴에 커다란 비수가 돼 꽂혔다.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떼를 썼다고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방금 가셨단 말인가. 그렇게 보고 싶다더니 그새를 못 참고, 그놈의 문진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 방호복을 입는 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아니 마지막 손님을 받지 않았다면 엄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갑

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낮이 나가 있는 나를 형은 한심하게 바라봤다. 형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서울의 장례식장을 알아봐 엄마를 옮기고 상조회사를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해 엄마의 죽음을 알렸다. 손 하나 까딱 않고 늘어져 있는 나 대신 아내가 형과 형수를 도와 장례를 치렀다. 젓먹이를 친정에 맡기느라 늦게 왔다는 이유로 아내도 죄인처럼 형과 형수의 눈치를 봤다.

“너도 연락할 데 있으면 해라. 내가 대신할 테니 전화기를 주던지.”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던 내게 형이 다가왔다. 나는 됐다고 손을 저었다. 연락할 사람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한다고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엄마는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엄마의 영정만 들여다보며 나는 그저 울기만 했다. 눈이 툭툭 부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처음엔 안타까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그러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어쩌다 마주친 형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다.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나를 상 앞으로 끌어다 앉힌 형은 손가락을 쥐어 주며 소리쳤다.

“그러게 살아 계실 때 잘 하지, 새끼야!”

손님을 받느라 형은 술이 얼큰한 상태였다. 술김에 속이 상해 한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손가락을 집어던졌다. 별떡 일어나 상을 뛰어넘어 형의 먹살을 움켜잡았다.

“뭐라고? 새끼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소리를 했다. 몇몇이 다가와 형의 먹살을 잡은 손을 떼어냈다.

“이 새끼가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내 손에서 벗어난 형의 주먹이 날아왔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쳤다. 울고 싶은 참에 뺨을 맞은 나는 주저앉아 아예 통곡하기 시작했다. 형이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 아내가 다가와 등을 때리며 달렸다. 친척 어른들이 함께 울다간 지쳐 돌아갔다. 그래도 나는 울었다.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을 생각만으로도 다시 눈물이 났다. 아내는 일이라도 해야 잇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내 눈치를 봤다.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며칠 동안 안 봤다고 그새 잊었는지 아이는 낯을 가렸다. 젖병을 물고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입을 비죽댔다. 잠들 때까지 악착같이 젖병을 놓지 않는 아이를 보며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불효자는 되도 못한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엉덩이를 밀어 올랐다.

가기 전 시장과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러 핸드폰을 꺼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꺼내 보지도 않았던 터라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가게로 가 주문을 해야 했다.

가게 문을 열고 우선 청소부터 시작했다. 손님은 없어도 매일 쓸고 닦던 가게라 한눈에도 손이 안 간 티가 났다. 걸레를 집어드는 데 웬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어색하고 서툴면서도 뭔가 시작한다는 뿌듯함과 설렘에 우울하고 가라앉은 기분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 같았다. 빗자루로 홀과 문밖까지 쓸고 물청소까지 마치고 허리를 폈다. 일이라도 해야 잇을 수 있다고 한 아내 말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살아 있었네?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찬장에 있던 그릇을 꺼내 설거지를 마쳤을 때였다. 미용실 장 선생이 얼굴을 뻔뻔히 들이밀었다.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걸 보니 출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장 선생의 미용실은 상가의 끝에 있어 우리가 가게를 지나야 했다. 출근할 때 내가 보이면 장 선생은 얼굴을 들이밀며 늘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말없이 문을 닫고 있었으니 그녀의 입장에선 몹시 궁금했을 터였다. 성격상 몇날 며칠 궁금증과 걱정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었다. 차라도 대접해 보내야겠다 싶어 홀 밖으로 나오는데 내 얼굴을 본 장 선생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때까지도 퉁퉁 부어 있는 얼굴을 보곤 꽤나 놀란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은 왜 그래?”

나는 사정 이야기를 했다. 요양원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느라 그동안 가게 문을 못 열었노라 말하려니 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내 눈물에 덩달아 눈물을 흘린 장 선생은 알리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트렸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녀의 눈물에 이번엔 내가 또 눈물을 흘렸다.

“아참, 그런데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나도 몇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분식집 아저씨도 하고. 처음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더니 나중엔 전화가 아예 꺼졌다잖아!”

한참을 울고 난 장 선생은 뭔가 생각난 듯 정색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선생의 말투와 표정에서 연락이 안 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정신이 없어서 배터리 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요? 분식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다하고?”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뽑아 눈물을 닦고 코까지 크게 풀고 난 장 선생은 말도 마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놈의 썬페이인가 뭐가!”

장 선생은 이번엔 손으로 가슴을 탁탁 쳤다. 같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인상까지 찌푸렸다.

“썬페이가 왜요?”

장 선생의 표정과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끼쳤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침이 넘어갔다.

“아휴, 모르는구나? 전화 좀 받지 그랬어. 며칠 동안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상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몇날 며칠 방송에 신문에서 떠들고 난린데 자기만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장 선생 말이 썬페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부도라니.

“어쩐지 며칠 동안 갑자기 썬페이로 계산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아, 이제 이게 그래도 값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부도 날 걸 미리 알고 다 써버린 거지. 우리 같은 어리숙한 장사꾼들한테.”

장 선생 말이 아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পে이들을 다 써버렸고 뒤늦게 안 사람들은 환불을 받겠다며 본사에서 농성을 벌였다고 했다.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에선 썬페이의 문제점이 우후죽순 쏟아졌다고 했다.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위험에 투자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부도가 나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애꿎은 장 선생을 다그쳤다.

“썬페이로 받은 건 날린 거지. 뭐. 난 그래도 얼마 안돼서 다행인데. 뭐야? 자기는 표정 보니 많이 받았나 보네. 이걸 어째?”

장 선생이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머리가 핑 돌았다. 그 와중에 썬페이로 계산하던 사람들이 생각났다. 숯기가 없던 여자. 밥을 먹는 내내 나를 힐끗대며 키들거리던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남자와 가족들. 나는 곁에 있던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에고, 뭐 어찌됐어?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니까 잊어버려.”

점점 일그러지는 내 얼굴에 장 선생은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하염없이 걷다가 우뚝 걸음을 멈췄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디로 가려던 길이 있었을까. 차근차근 머릿속을 헤집어도 좀체 떠오르지 않았다.

낯선 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그제야 아내와의 약속이 생각났다.

“어디예요?”

전화기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 없었다.

“여보, 빨리 갈게. 기다려.”

말을 하는데 목이 잠겼다. 순간 아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찢먹 이를 떼어놓고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닳고 있던 나를 지켜보느라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해 좋아하는 파스타를 사주겠다고 한 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약속 장소와 한참이나 떨어진 엉뚱한 곳에 와 있었다. 나는 마침 다가오는 택시 안에 얼른 몸을 실었다. 설레는 마

음으로 아내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니 건너편에 아내가 보였다. 안고 있는 아기와 눈을 맞추는 아내의 입가에 웃음이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떠올랐다. 내 식당에서 남자 또한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였다. 그의 어머니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아내.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들. 그들의 슬픈 모습이 내 가족을 밀어내며 눈 앞에 떠올랐다.

창밖에서 있는 나를 본 아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바람처럼 길을 건넜다. 이제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와 아기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 조금 전 있었던 일과 남자와 그 가족과 엄마 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만 주춤 발을 멈췄다. 아내의 곁으로 남자 둘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내는 남자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다가온 사내들이 고개를 숙여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는 유리 너머로 슬쩍 나를 봤다. 사내들도 고개를 돌렸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유리 너머 사내들은 뭐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다. 나는 얼른 몸을 돌렸다. 아내의 만류에도 사내들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를 부르는 걸까. 뒤에서 사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헤치고 달리고 또 달렸다.

나는 도망자 신세였다. 남자가 굉음과 함께 트럭 속으로 사라진 순간부터. 그를 왜 쫓아갔을까.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남자의 사고

는 내 책임이 아니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피해자였다. 남자는 나를 속였고 그로 인해 엄마에게 가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남자의 사고에 내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가 누군지 알았을 때 걸음을 멈춰야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가해자일까.

식당에서 나온 남자들은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도망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빌딩의 전광판에 주요 뉴스가 흐르고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뉴스가 지나자 썬페이 본사에 몰려가 항의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항의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다툼을 벌였다는 말도 들렸다. 썬페이를 미리 산 사람들과 썬페이를 받은 상인들 모두 속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결국 몰려든 사람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변졌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됐다고 했다. 뉴스 후 전문가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처음부터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구조적으로 불안했던 결제 수단을 승인해 준 정치인들. 그리고 홍보한 연예인들의 얼굴도 보였다. 그랬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야지. 가서 아내와 아이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웃으며 발길을 돌리는데 순간 귀를 찢을 듯한 굉음에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지 몸이 봉 떠올랐다. 눈앞의 트럭, 놀란 사람들의 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지만 그럼에도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도망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를 쫓아오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봉 떠오른 몸이 바닥에 부딪치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어제 수인동 사거리에서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정모 씨. 한 인터넷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 씨는 급여 대신 부도가 난 썬페이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썬페이 전속모델 배우 한 모 씨를 협박과 스토킹했으며 썬페이를 승인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익명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이를 수사해 오던 경찰은 범인이 정 씨임을 알아냈고 수사망이 좁혀 오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씨가 처지를 비관해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수인동 사거리. 썬페이. 모텔 한씨. 국회의원. 협박 편지. 하지만 누군가 채널을 돌렸는지 뉴스가 사라지고 트로트 음악이 들렸다.

“여보, 괜찮아요?”

눈을 떴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타까운 듯 한심한 듯.

“아니 왜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요. 차가 다행히 멈췄으니까 망정이지.”

다행이란 말에 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봤다. 내가 손발과 팔다리까지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는 사이 흰 가운의 의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다행히 차가 환자분을 보고는 급정거를 해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타박상 정도니까 내일까지 안정 취하시고 별 증상 없으시면 퇴원하세요. 사차선 도로에서 쓰러지셨는데. 운이 아주 좋으셨네요.”

의사는 한번 웃어 보이곤 방을 나갔다. 아내가 문 앞까지 따라가며 인사했다. 병실을 나가며 의사는 한 번 더 운이 좋다는 말을 했다. 역시나 오늘도 운수가 꽤 좋은 날인 모양이었다.

백지영

200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등단, 세종대 국문학 박사, 소설집 『피아노가 있는 방』,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 장편소설 『나의 노열패밀리』, 『내 황홀한 웃의 기원』

이집트의 백사막과 흑사막

한 경 | 시인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

우리 집 거실 장식장 위에서 10년째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베두인의 고뇌’. 나는 여전히 그 남자를 아끼고 사랑한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면 그는 자기가 살았던 사막과 낙타와 밤하늘을 그리워한다. 나는 그가 그리워하는 사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나그네로서 그 사막의 별빛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그립다. 햇살이 눈부신 날은 그를 운명처럼 만났던 간이 휴게소의 투박하고 몽툷했던 찻잔에 마셨던 차 맛이 입안에 맴돌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곤 한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왕자』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바하리아 사막으로 야영을 하러 가는 날. 부푼 마음으로 아스완에서 열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카이로에 도착하니 아침 7시이다. 기차에서의 숙박과 식사가 편하지는 않지만, 밤 기차를



● 베두인의 고뇌 조각상

타고 새벽을 향해 달리는 여행도 색다른 감흥과 추억을 선사한다. 동틀녘에 기차에서 내려 카이로에서 남서쪽 370km 지점에 있는 이집트 사막지대의 바하리야 사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마을, 허물어진 담벼락에 색이 바랜 채 남아 있는 원색의 벽화들을 보노라니 마치 상처받은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버스 안에서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열심히 설명하던 현지 가이드 청년은 이집트가 부패한 관료들로, 국민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며 분개와 울분을 토해냈다. 만연한 부패로 국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카이로 대학을 나왔다는 그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부럽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이집트 젊은이의 울분을 들으니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행복이 좌우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또 어느 나라나 비껴가지 못함을 상기하며, 가난이 묻어 나오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며 가이드의 울분에 동감이 된다.

한참을 달려 들른 휴게소에는 사탕과 음료수 그리고 담배가 진열되



●이집트 휴게소에서 만난 소년들

어 있는데 진열된 상품에는 흡면지가 잔뜩 묻어 있고 휴게소 주변은 마치 쓰레기 집화장처럼 각종 플라스틱병과 녹슨 캔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휴게소 앞에 모여 있던 열한두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다가오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어 놀랐다. 우리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며 손을 내미는 아이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같이 사진을 찍자며 포즈를 취한다. 쾌활하고 밝은 표정이 좋기는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물려다니는 벽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얼마를 달렸을까 바하리아 오아시스의 중심지 바위티 마을에 도착했다. 사막으로 가기 전 사막의 마지막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곳 간이 휴게소는 베두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차와 기념품을 팔고 남편은 사막 투어의 리더인 듯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챙겼다. 열기설기 풀을 엮어 햇빛을 가린 가게 안에는 낙타털로 짠 카펫과 나무로 만든 조각품, 흙을 빚어 구운 인형들을 팔며 차를 팔고 있었

다. 우리를 태우고 갈 지프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시며 진열된 기념품들을 구경했다. 낙타털로 짠 거친 질감의 매트, 기하학적인 다양한 문양에 베두인의 예술적 끼가 느껴진다. 벽에 걸려 있는 매트 아래에는 갖가지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흙으로 빚은 인형 하나가 내 눈에 띄었다.

내가 관심을 보이며 만지작거리자 가이드가 다가오더니 이 지역 장인이 빚은 작품이라며 ‘베두인의 고뇌’라고 작품명을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우며 사라고 나를 부추긴다. 투박한 질감에서 풍기는 흙의 파스함과 단순한 구도, 또 ‘베두인의 고뇌’라는 멋진 작품명도 맘에 들어 망설임 없이 토기 인형과 낙타털로 짠 매트를 샀다. 터번을 두른 남자가 구부린 무릎에 머리를 수그리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에서 베두인의 짙은 고뇌가 그대로 묻어난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우리가 타고 갈 여러 대의 사륜구동차가 사막 야영에 필요한 텐트와 매트리스, 이불 등을 차량 지붕에 잔뜩 싣고 나타났다. 간이 휴게소에서 땀감과 식자재를 보충한 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별로 차량에 올랐다. 기사인 베두인들은 원래 염소와 낙타를 기르며 살던 유목민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겸 운전과 요리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꾸려 간다고 한다.

바하리야 국립공원에서 사륜구동차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리니 눈앞에 펼쳐지는 검은 사막은, 일반 개념의 사막과는 사뭇 다르다.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 사막의 낮선 풍경이 생경하다.

온통 거뭇거뭇한 사막의 검은색은 철광석이 함유된 화산재가 굳어 검은빛을 띠기 때문이다.



●—흑사막의 볼캐닉 마운틴

볼캐닉 마운틴(Volcanic Mountain)이라 불리는 피라미드 모양의 작은 화산 산들이 즐비한 흑사막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래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되어 굳어진 기괴묘묘한 까만 돌이 많은데, 돌을 들어보니 철광석 성분 때문인지 보통 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볼캐닉 마운틴이 지평선 가득 펼쳐져 있는 작은 화산 산들 중에 좀 높은 화산 산을 오르다 보니 여기저기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신기한 돌이 많이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구멍이 뚫린 작은 돌 하나를 집어 왔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흑사막이 떠오르며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 언제 다시 그 사막에 가서 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하지 못할 숙제는 아니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흑사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1시간여를 달리자 눈 깜짝도 하고 소금을 뿌려놓은 듯도 한 하얀 사막이 나타난다. 신기한 그 모습에 모두 탄성을 질렀다. 갑자기 차를 세운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웰컴 투 알래스카’라며 추위에 떠는 익살스러운 행동에 우리 일행은 한바탕 웃으며 백사막의 경이로운 전경에 기분이 들뜬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사막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을 것같이 고요



●백사막의 랜드마크인 병아리와 버섯

하고 신비스럽다. 바다가 솟아올라 만들어졌다는 백사막이 흰색을 띠는 것은 이 지역이 백악암(chalk rock) 지대의 사막이기 때문이란다. 백악암이 오랜 세월 바람에 깎여 나가서 다양한 형태의 암석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조각들은 바람과 세월이 빚어낸 걸작품들이다.

낙타 모양의 풍릉석과 알라딘의 램프 같은 조각상 백사막의 랜드마크인 병아리와 버섯(chicken and mushroom) 조각 앞에서 다들 사진을 찍느라 난리다. 하얀색이 주는 순결함과 여기저기 서 있는 조각들로 사막은 마치 거대한 조각 전시장 같았다. 가 본 사막마다 특색과 느낌은 다르지만 늘 사막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의 검은 사막과 하얀 사막은 더 특별했다. 검은 사막은 근육질의 강한 남성미가 풍기고, 하얀 사막은 사랑에 빠진 수줍은 신부의 숨결같이 눈부시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사막의 조각상 위로 붉게 물들던 사막의 전경은 감탄을 넘어 경건한 마음이 든다. 하얀 모래를 한 움큼 쥐어 보니 분필처럼 하얀 가루가 손에 묻어나지만, 분위기에 취해 우리는 가장 편안



●백사막의 랜드마크인 병아리와 버섯

한 자세로 모랫바닥에 누워,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 자기 상념에 빠져든다. 사막에서 느끼는 절대 고독의 묘미인지, 이 낯선 사막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극과 극은 상쇄하기 때문일까.

“사막은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의 대사가 스쳐 간다.

우리가 사막을 구경하는 동안 우리를 태우고 온 베두인들이 어느새

차량을 기둥 삼아 신고 온 커다란 카펫으로 휘장을 쳐 바람막이 천막을 만들고 낙타 카펫을 깔고 상을 펴서 근사한 식탁을 만들었다. 그 옆에 가지고 온 나무에 불을 피워 염소와 닭고기 바비큐를 굽고 냄비에 서는 카레를 만들었는지 카레 냄새가 진동한다.

배정받은 작은 텐트에 짐을 풀고 식탁에 모여 맛있는 사막에서의 만찬을 즐겼다. 모래바람에 입이 서걱대지만, 더없이 행복한 사막에서의 식사였다. 그들이 준비한 커피까지 마시고 모닥불에 둘러앉아 사막의 바람을 즐기는 밤, 베두인의 노래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가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막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듣는 베두인의 구슬픈 노랫소리와 빨강게 타오르는 모닥불에 얼굴이 상기되며 마음이 숙연해진다. 하얀 모래사막이 어둠에 잠기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이 머리에 닿을 듯 가까이 쏟아지던 그 밤은 내가 이제껏 보고 즐긴 밤중에 제일 황홀한 밤이다.

어둠이 무르익어 가는 밤 음식 냄새를 맡고 사막여우가 물려들었다. 귀를 쫑긋 세운 귀여운 사막여우가, 먹이를 가져가며 우리를 경계하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의 배경이 백사막이라는데 아마도 어린왕자도 이 아름다운 백사막을 외면할 수 없었으리라.

사막의 밤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추워 여러 겹의 옷 위에 패딩을 입고도 덜덜 떨었지만 작은 텐트에서의 숙박은 어느 특급 호텔보다도 만족스러운 대자연의 숙소였다.

아마도 어린왕자가 사막여우를 데리러 이 사막에 와 있을지도 모른



●사막여우

다는 동화 같은 생각에 잠 못 드는 밤, 바람도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나도 한 송이의 장미꽃을 모자에 담아 이 사막에 오래 두고 싶어진다.

한경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시집 『투루판 사막의 낙타』, 『탐보마차이 잉카남자의 눈빛』, 수필집 『숲속의 물고기』, 여행 수필집 『나미비아 사막의 성자』

오늘의 중구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중구대회●

심사평 모두가 옥옥이라 | 김용성

〈초등부〉

최우수상_저학년 | 『가방 들어주는 아이』 | 김지민

최우수상_고학년 |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김현유

〈일반부〉

최우수상 | 『엄마는 어떻게 다 알까?』 | 김유진

〈작은도서관부〉

최우수상 | 『음식물 쓰레기 전쟁』 | 김혜정

모두가 옥옥(玉玉)이라

김 용 성 | 중구문화원 이사

작년에 이어 제44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서울시 중구지부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독서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지부 대회 출품작은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우면서도 훌륭한 작품이 많아 매우 놀랐습니다. 글 내용은 물론이고, 맞춤법이나 글씨체를 볼 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뱀 원고지가 글쓴이의 노력을 방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읽는 이를 위한 배려입니다. 덕분에 읽는 재미가 컸습니다. 좋은 작품 출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작품 선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옥옥(玉玉)이라, 나름대로 고심하여 어렵게 심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문장력보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썼을까’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생각이나 경험을 남의 글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행위를 독서라고 하면, 그걸 내 경험과 생각에 맞춰 새로운 생각이나 느낌을 남기는 것이 독후감상문입니다. 글을 쓰면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찰(省察)’도 따라와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글귀가 새겨진 석조가 있습니다.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회장이 1980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금싸라기 공간에 대형 서점을 설립한 후에 올린 글귀입니다. 신용호 회장은 평소 본인이 교보생명을 건립할 수 있었던 힘은 독서와 여행이라 하였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귀한 경험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여행은 내가 살지 못한 곳을 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글쓰기입니다.

이번 중구지부 독서경진대회에 출품된 작품들 대부분에서 성장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간 꽤 많은 독서와 글쓰기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독서와 글쓰기 문화를 장려하는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와 소중한 지원을 허락해 주신 중구문화원 그리고 큰 도움을 주신 한국여성문예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초등부 저학년 | 최우수상 | 김 지 민(청구초)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엄마가 『가방 들어주는 아이』 책을 추천해 줘서 읽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가 왜 가방을 들어주는지 궁금해져서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석우는 새 학기 날 선생님에게 다리가 불편한 영택이 가방을 들어주라는 임무를 맡았다. 석우는 선생님이 준 임무를 생각하면서 영택이한테 다가갔다. 석우가 어색한 것처럼 영택이는 석우에게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한 표정이었다. 새 학기인 첫날은 가방이 가벼웠는데, 다음 날은 가방이 조금 무거웠다. 그리고 가방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다. 석우는 교문에서 되돌아보니 영택이는 운동장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영택이는 먼저 가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방을 두 개 들었다고 약 올렸다. 석우는 기분이 나빴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고 했다. 안 된다고 말하자, 친구들은 영택이는 석우가 10분에 갈 거리를 영택이는 30분 가까이 걸어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축구를 해서 불안했는데 영택이 어머니가 석우 손에 초콜릿을 줬다.

어느 날 식구가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엄마는 “다리가 아픈 애를 가방을 들어준다며?” 라고 말했다. 아빠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너만 시켰냐고 소리를 쳤다. 석우는 괜찮다고 말했다. 하루는 할머니

들이 영택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게 석우에게 하는 것 같았다. 석우는 “할머니들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더니 시끄러웠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했다. 집에 가니 영택이 어머니가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줬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영택이는 석우에게 물었다. 영택이 생일은 10월 4일이라며 생일에 초대했다. 영택이네 온 아이들은 서경이와 석우였다. 어머니는 실망을 했다.

3월 3일 새봄이 시작됐다. 근데 영택이 가방을 들을까 말까 했다. 근데 2학년 동생들이 놀렸다. 석우는 창피해서 학교 쪽으로 달렸다.

그 일 때문에 석우는 영택이를 피했다.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요란하게 운동장으로 갔다. 석우는 3학년 2반 쪽으로 섰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다.

교장 선생님은 모범상을 3학년 2반 문석우에게 줬다. 석우는 이 상을 받으면 나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울었다. 이제부터 영택이 가방을 매일 들어줘야겠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장애를 가진 친구랑도 친구하자고 결심했다.

※고정욱, 『가방 들어주는 아이』(사계절)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점점 위험해져 가는 생태계

초등부 고학년_최우수상 | 김 현 유(남산초)

내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2006학년도에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도서라는 책으로 지정되었기도 하고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 제목이 흥미로워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목차는 1부부터 4부까지 있다. 1부는 생명에 대한 생각이고 2부는 우리 이웃에 대한 생각이고 3부는 자연에 대한 생각, 4부는 살림살이에 대한 생각이다.

1부의 줄거리는 콩고에 사는 고릴라에 대한 내용이다. 간단한 내용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아 콜탄이라는 자원을 정련하면 탄탈이라는 금속이 나오는데 그 탄탈이라는 자원을 이용해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만든다. 하지만 고릴라의 마지막 서식지인 국립공원에 콜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콜탄을 얻기 위해 국립공원에 가고 식량을 얻기 위해 고릴라를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다.

그다음인 2부의 내용은 지구와 물에 관련된 이야기다. 간단한 줄거리는 지구를 보면 바다가 많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구에 있는 많은 물 중 소수이다. 우리는 그런 물을 아껴 써야 하는데 우리는 평소애 많은 양의 물을 쓴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써야 한다.

그다음은 3부이다. 3부의 내용은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여름이거나 더울 때 보통 에어컨을 튼다. 하지만 에어컨보다 우리 생활에서 냉장고는 참 많이 쓰인다.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에도 쓰이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한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차가운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냉매를 알고 있나? 그런데 이 냉매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냉매로는 암모니아, 프레온 등이 있다. 이중 현재 대부분 유통되는 냉매는 프레온 계열인데 프레온은 공기 중으로 나온 후에도 분해가 되지 않아서 성층권까지 올라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 뒤 염소원자를 내놓는다. 염소는 원자 상태에서 강력한 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층권에 분포되어 있는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을 산소로 되돌리고, 결국에는 오존층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기온 상승, 가뭄, 홍수 등 지구에 이상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과 줄거리는 끝났다.

내가 이 책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부에 아프리카 고릴라 이야기였다. 내가 이 책 내용 중 유일하게 몰랐던 이야기라 더욱 흥미로웠기도 하고 내가 자주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고릴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고릴라들을 죽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도 평소에 에어컨을 세게 틀고 선풍기까지 트는 내 인생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 말고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책에 바라는 점은 아프리카 고릴라 이야기처럼 평소에 흔히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인도의 보팔 사건이나 이탈리아의 세베소 사건과 미국의 스리마일 사건 같은 다른 나라와 관련된 환경오염 사례나 지구 온난화와 연관 지어서 책을 썼으면 더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지구를 잃은 뒤에 지구 온난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박경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북센스)

『엄마는 어떻게 다 알까?』

—눈물로 얼룩진 책

일반부_최우수상 | 김 유 진(회현동)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나. 나에게 ‘김유진’이라는 이름은 불린 지 오래다. 대신 ‘현유 엄마’, ‘현서 엄마’가 내 이름이 되었다. 이제는 익숙해진 내 이름. 하지만 늘 나에게 다정하게 ‘김유진’이라고 불러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 엄마 ‘김향순 씨’다. 나는 항상 엄마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김유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다. 나의 어린 시절 유치원 선생님인 수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란다. 엄마가 다 읽어 보고 엄마가 된 내게도 추천해 주고 싶었다고 하셨다. 그 책은 바로 『엄마는 어떻게 다 알까?』였다. 책을 받아든 나는 제목만 보았을 뿐인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한테 받은 책이라 감동은 더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울컥한 내 마음은 속일 수 없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딸이라서 느끼는 감정, 엄마라서 느끼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듯 뒤섞였다. 특히 “엄마도 아프면 엄마 생각이 난다.”는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계 맞은 느낌이었다. 나도 아프면 엄마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엄마도 아프면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을 하겠구나. 잠시 잊고 지냈다.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의 딸이었다는 것을. 엄마도 엄마가 항상 그립고 또 그리울 텐데….

늘 운전대만 잡으면 “운전 조심해라.”, 끼니를 거를 때면 “건강 생각해서 밥 잘 챙겨 먹어라.” 하고 내 걱정만 하시는 우리 엄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내 감정을 알아채고 나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엄마. 항상 잔소리로만 여기고 통명스럽게 대하던 나의 행동들이 불현 듯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낡은 구두’를 언급한 내용은 너무나도 공감이가는 부분이 었다. 본인은 늙었으니 낡은 구두, 낡은 신발 신어도 괜찮다는 엄마. 엄마 신발을 살 돈으로 우리 딸 편하고 예쁜 신발이나 사라고 늘 손사래를 치셨다. 또 본가에 인사차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양손 무겁게 음식을 싸주시는 우리 엄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행여나 굶고 다닐까 노심초사다. 아무렴 도시에 살고 있는데 갈비탕 한 그릇 못 사서 먹을까. 점점 작아져만 가는 엄마의 어깨엔 늘 반찬 가득한 가방이 메어져 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엄마 고마워.” 하는 말 대신에 참았어야 하는데, 결국 나는 쓴소리를 내뱉고 만다. 그런 내 마음을 다 알고 엄마는 서운할 텐데도 내색하지 않는다. 내가 화내는 것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엄마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점점 늙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왜 항상 잊고 생활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되었다.

책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여서 나는 엄마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다. 나에게는 아직 젊고 건강한 우리 엄마인데… 현실은 달랐다. 함께 쇼핑을 할 때도, 함께 여행을 갈 때도, 함께 운동을 할 때도 늘 나보다 앞서 걸었던 우리 엄마. 지금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며 벤치만 보이면 앉아 쉬고, 걷는 것을 힘들어하신다. 마냥 젊고 씩씩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빨리 늙어 가고 있었다.

엄마가 아니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지은이와 달리 엄마가 된 나는 지은이의 엄마 이야기를 백 번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덧 엄마에게 선물받은 책은 눈물로 젖어 두터워졌다. 책이 두터워진 만큼 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도 두터워졌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우리 엄마를 다시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주기만 바랐던 내 욕심을 반성해 본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싶다. 엄마는 나에게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엄마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늘 엄마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백세 시대를 언급하며 오로지 딸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과 다르게 엄마의 신체 나이는 애석하게도 이미 백세였다.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말고 엄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엄마를 향한 내 마음을 비로소 이 책을 읽고 용기 내어 적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용기 내어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다. “우리 엄마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는 엄마가 아닌, 딸이 전합니다.

※반승아, 『엄마는 어떻게 다 알까』(선우미디어)

『음식물 쓰레기 전쟁』

작은도서관부_최우수상 | 김 혜 정(황학동)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식문화, 즉 음식에 대한 재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음식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풍요로운 식문화 속에서 인간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떨어진 음식의 가치에 따른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매일같이 버려지는 음식물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토양 오염 및 자원 낭비 등 여러 문제들 모두 우리가 직면하고 현실이다. 이번 책 『음식물 쓰레기 전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방면에서 다뤄 보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크게 7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장에서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큰 환경 문제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2~7장까지는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와 그 해결 방안과 실제 적용 사례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평소에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각 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1장에서는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산업화를 거치며 식품의 생산량이 이렇게 증

가했는지, 그에 따른 식품의 가격 하락은 많은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를 일으켰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음식물 쓰레기들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처리는 결국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메탄의 배출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가공하여 거름으로 이용하거나 바이오 가스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인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 하더라도 그 양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각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생각하더라도 그 양은 엄청날 텐데, 이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다면, 여러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왜 화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음식이 없어서 기아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식품들이 낭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7장에서는 쓰레기를 각각 농장, 식품 제조공장, 슈퍼마켓, 음식점, 소비자 배출, 식품 관련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우선 농장의 경우, 농장의 거대화와 농산물 규격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 농산물에 대하여 설명한다. 농장의 거대해지면서 식품의 양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증가에 따라 각 식품의 상태를 결정하는 등급제가 도입되게 된다.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농산물들은 결국 납품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를 막기 위해서 상태가 괜찮으나 생김새가 좋지 못한 상품들은 따로 분류하여 기부하거나, 따로 ‘못생겨서 맛있는’ 등의 재밌는 로고와 함께 싼 가격에 판매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외형을 없애기 위하여 가공식품인 잼, 소스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업 사이클 운동도 있다. 이러한 여러 운동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흔히 말하는 불량 생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 제조 공정과 슈퍼마켓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의 부산물 재활용이나, 저장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날짜 표시에 의해 낭비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기한이 주로 표시되고는 하지만,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 유지 기한, 품질 유지 기한 등 소비자를 헛갈리게 하는 표시들이 너무나도 많다.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꺼림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이러한 점은 슈퍼마켓에서도 발생하기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릴레이, 품질 기한은 지났으나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물들을 기부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거나, 이러한 남은 음식물들을 따로 분류하고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 및 사마리안 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더 늘려야 대형 마트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5~7장은 음식점, 소비자, 식품 관련 쓰레기를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빨대나 포장제와 같은 도구 플라스틱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예전처럼 집에서만 먹는 식문화가 아니라 외식이 점점 많아지는 식문화가 됨에 따라,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양이 거대해짐에 따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하

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먹는 제로-웨이스트 운동과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도기백이 제시되고 있다. 도기백의 경우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소 남은 음식을 가져간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감정을 줄일 수 있도록 남은 음식은 가져가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책에서 제공되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페이프 카페의 경우, 여러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라 본다. 소비자 배출 쓰레기의 경우, 충동적인 소비 패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크게 본다. 흔히 우리가 마트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1+1 행사의 경우 별생각 없던 사람도 현혹되며,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식품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식사-계획 앱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내부를 볼 수 있는 스마트 냉장고 등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안이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냉장고를 통해 각 식품들의 정확한 유통기한을 파악하고, 소비 계획 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 본다. 플라스틱 포장재, 페트병, 일회용 수저 등 다양한 플라스틱 편의 도구의 경우, 분해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450년이라는 압도적인 기간과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피해 등 다양한 환경-인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겠지만, 이 외에도 생물 분해 포장재나 퇴비화가 가능한 일회용품 등 다양한 물질들을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일회용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학도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다.

우리는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 비용을 줄여 왔지만, 이는 오히려 식품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는 의도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유의미한 감축을 보여야 하며,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서 지구 전체의 식품체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감축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과는 달리 우리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에 평소 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앤드루 스미스, 『음식물 쓰레기 전쟁』(와이즈맵)

중구의 인문학.....



●근대 문학 탐방●

염상섭의 『삼대』를 걷다 | 최영락

근대 문학 탐방

—염상섭의 『삼대』를 걷다

최영락 | 시인

2024년 서울문학축제가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졌다. 명동 YWCA강당에서 진행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청계천 문화광장 본 행사까지 문학을 통한 새로운 축제의 장을 열어 보이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제16회를 맞이하는 서울문학축제의 올해의 테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작가인 염상섭의 작품 『삼대』를 중심으로 하여 작가와 작품을 토대로 우리 문학사에 미치는 근대 문학의 영향력과 서울과 명동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낭독극, 문학 탐방, 낭독대



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의 문학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근대 문학 낭독대회’와 『삼대』 배경지를 따라 걷는 ‘문학 투어’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깊어 가는 가을 문학의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었다

필자 또한 낭독극과 문학 탐방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근대 시대 복장을 하고 주인공들이 걸었던 『삼대』의 배경지를 따라가 보는 문학 투어는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에 직접 참여한 경험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청계광장의 행사와는 별도로 서촌—경복궁—청와대 앞길—국립현대미술관을 따라가는 염상섭의 『삼대』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행사가 있었다.

출발 지점인 서촌 입구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집결한 인원은 25명 정도였고 인솔(해설)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민호 교수님이 해

주셨다. 참가자 중 일부는 당시의 의상(필자는 두루마기)을 입어서 분위기를 돋우었고 무엇보다 날씨가 쾌청하여 진행이 순조로웠고 일행들의 얼굴도 날씨처럼 해맑았다.

먼저 찾아간 곳은 염상섭이 태어난 집이었다. 아쉽게도 원래의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빌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청마 빌라라는 이름이 궁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마 유치환도 살던 곳이었다. 대작가 2인이 한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지만 소설가 염상섭이 시인 유치환에게 밀린 것 같아 묘한 느낌도 들었다.

염상섭이 살던 서촌을 지나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이 거닐던 경복궁 돌담길을 돌아 청와대 앞길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르렀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로 경복궁 주변은 활기가 넘쳤고 청와대를 찾아온 사람들도 무척 많았다.

소설 속 독립운동가(필순 아버지)가 입원 후 숨을 거두었던 병원(경성 의전)이 1979년 10·26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후 처





음 시신을 안치했었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변신을 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어지럼증을 느끼려는데 아쉽게도 탐방은 끝을 맺었다.

비록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면서 보고 들은 탐방이었지만 염상섭
의 필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였고 소설 『삼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고를 해 주신 이민호 시인님과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중구의 문화예술



●제24회 명동 시낭송콘서트 후기●
명동, 영원한 시(詩)네마 천국 | 최윤경

●‘삼대’ 낭독극 후기●
고운 빛으로 빛내고 싶다 | 조남옥

명동, 영원한 시(詩)네마 천국

최윤경 | 시인, 한국여성문예원 이사

서울중구문화원과 한국여성문예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24회 명동 시낭송콘서트가 2024년 11월 8일 오후 5시 서울의 명동 YWCA회관 4층 강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그야말로 명동 시낭송콘서트는 중구의 뜻깊은 행사다.

“명동, 영원한 시(詩)네마 천국”이라는 타이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다루었던 명동의 문인과 문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 장르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제공하였다.

명동을 말할 때 영화는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빼놓기 힘든 장르일 것이다. 모두의 추억 속에서 일렁이는 명동극장, 코리아, 중앙극장 등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함께 느꼈던 감동과 눈물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행사장에 도착해 자리를 정돈하고 앉으니 명동의 그 시절 영화 포스터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잠시 향수에 빠지는 순간 오프닝으로 영화 ‘굿 윌 헌팅’ 중 엘리엇 스미스의 miss misery를 밴드 스테인필스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하는 이근영 님이 연주해 주었다. 또한 명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음을 상영하는 순서에서는 그 시절 명동의 영화를 추억하며 잠시 그 옛날의 명동거리로 들어가고 있는 상상을 하였다.

그 시절 영화 속 배우를 동경하며 어디선가 배우가 된 것처럼 명동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던 기억

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다.

옛날의 명동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다방에서 글을 썼고 배우들은 명동에서 캐스팅이 돼 은막의 스타가 되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명동은 시네마 천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이 가득했던 극장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이제 명동은 배우들이 모이는 아지트도, 예술인들의 모습도 예전의 시네마 천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인지 성우 이진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명동, 추억을 걷는다’와 영화감독 육상호 감독님이 들려주시는 시나리오 이야기 등 영화 관련 이야기는 유쾌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깊어 가는 가을 명동에서 명동의 영화들을 추억하며 펼쳐지는 ‘시(詩)네마 천국’에 명동과 문학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화를 동경하는 마음이 어느새 하나가 되고 있었다.

특히 2024년 서울문학대상을 수상하신 나태주 선생님께서도 친필 사인 시집을 일일이 나눠 주시며 80세가 넘어 상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소회와 덕담을 들려주셨는데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 같았다.

영화와 영화 속 노래와 음악 그리고 시가 함께한 제24회 명동 시낭송콘서트는 초겨울이어서 조금은 어두운 초저녁의 시간, 60년대부터 상영되었던 영화의 포스터와 유명을 달리한 배우들의 모습들을 보며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근처에 있는 명동성당의 탑과 더 붙어 경건한 마음까지도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았다.

행사를 마련하고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한층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명동의 가을밤이었다.

고운 빛으로 빛내고 싶다

—염상섭의 『삼대』 낭독극을 마치며

조남옥 | 시인

2024년 지루하고 길기만 했던 여름이 갔다. 10월도 깊숙이 접어들어 가을은 왔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아침에 걸치고 나온 옷옷 하나 벗어 들어 팔에 걸치게 하며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 하나가 맺힌다.

10월 하고도 25일이면 완전한 가을이다. 아직도 여름의 지루함은 떨쳐 버릴 수 없는데 높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신선하게 다가오는 일상 탈출의 기회라고 할까. 한국여성문예원에서 주최하는 서울문학축제 ‘문학 봄은 온다.’ 주제 하에 다양한 문학 행사 일정이 잡혔다.

서울문학대상과 장금생문학상 수여식에 이어 한국여성문예원 산하 청계문인극단이 출연하는 20세기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염상섭의 『삼대』 낭독극을 하게 되었다.

1930년대 사회 전환 과정을 그려낸 사실주의 가정 문학 소설로, 인간의 탐욕과 배신 복잡한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한국 사회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 뛰어난 문학적 가치를 지닌 염상섭의 『삼대』 작품으로 1931년 1월부터 총 215회에 걸쳐 당시 《조선일보》에 연재되기도 했던 장편 소설이다.

2개월 정도의 행사일을 남겨 놓고 낭독극을 준비하기 위해 5명의 출연자와 1명의 해설이 정해졌고 우리는 연습에 들어갔다.

2번째 연습을 해야 할 즈음 배역을 맡은 출연자 1명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5명의 출연자가 4명으로 축소되었다. 작품 속에 나오는 13명의 등장인물 역할을 4명의 배우가 맛깔스럽게 목소리 연기를 해야만 했다. 목소리만으로 배역의 이미지나 상황에 맞게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출연자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1인이 3~4역의 배역을 맡았고 바쁜 직장인이라 4회에 걸친 짧은 연습 날짜를 정했다.

기존 청계문인극단에서 다져진 실력에 최선을 다하자고 파이팅을 외쳤지만 역시 인간은 갈등 속에서 성장하며 발전하는가 보다.

작품 속 인물 조, 부, 손 삼대가 갈등을 겪듯, 잠깐이었지만 우리 출연진들에게도 연습 도중 사소하게나마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었다.

나름대로 시대적 배경에 어울리는 소품과 의상을 준비하였고 호흡을 맞추어 연습에 전념했다.

드디어 10월 25일 공연날 YWCA 4층 강당 객석은 하나둘씩 관객으로 메워졌다. 우리는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무대 경험이 많은 출연자도 있었지만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나에게 긴장의 순간이었다. 긴 호흡을 내뿜어 보기도 하고 경직된 몸과 입술의 근육을 풀어 보며 순서를 기다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청계문인극단이 출연하는 연상섭의 『삼대』 낭독극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자 우리는 입장을 하였다.

극본: 백지영 연출: 김혜영 해설: 정경자

조익관, 순사, 하인: 최영락

조상훈, 김병화, 행인2: 윤경상

조덕기, 행인2: 서종원

홍경애, 수원집, 덕기 모: 조남옥



사진처럼 1명의 배우가 2~3인의 인물이 되었다. 15분가량 짧은 분량의 낭독극을 통해 1930년대의 사회 전환 과정에서 보여준 조, 부, 손이 겪어야 했던 세대 간의 갈등과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세대의 갈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각자 모두가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늘 그렇듯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빛깔 고운 단풍잎이 가을을 곱게 물들이듯 고운 빛으로 무대를 빛내고 싶다.

바쁘신 중에도 객석을 채워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15분가량의 짧은 낭독극으로 끝냈지만 긴 장편소설의 선명한 주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다. 장편의 긴 소설을 15분 정도의 분량 낭독극으로 담아낸 백지영 작가, 작품의 이해와 흥미를 더해 맛깔스럽게 지도해준 김혜영 연출 두 분께 감사를 표한다.

제22회 중구문예문학상.....



〈일반부〉

시 부문 최우수상 | 호수공원 가는 길 | 양미애
우 수 상 | 개 짖는 소리 | 윤소영
마네킹 | 허동원
차 상 | 손잡이 | 고승환
겨울 철쭉 | 김수현
소공자 | 박건우
모래 같은 사랑 | 진수정

수필 부문 최우수상 | 할머니의 소품 | 박찬미
우 수 상 | 어머니의 선물 | 장월남
자전거의 비상 | 고미령
차 상 | 숲의 선물 | 최양수
행복의 향기 | 정희아
그때는 몰랐던 일 | 박신영
엄마의 등반이 | 주선미

〈학생부〉

시 부문 최우수상 | 반딧불이 | 정 인
우 수 상 | 이름 없는 영웅들 | 고운울
가을 | 송유찬
차 상 | 스마트 시티 | 차지안
그림자 | 차재원

수필 부문 최우수상 | 이방인 탈출 | 김정인
우 수 상 | 살아가는 것과 페달을 굴리는 것 | 이에린
심사평 낮설게 하기에서 친근함까지 | 라은채

호수공원 가는 길

최우수상 | 양미애

사람이 죽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곳을 찾는다고
 당신이 말했다.
 눈이 하염없이 사박사박 날리던 날,
 호수공원 가는 길에 눈발을 맞았다.

신분당선 1번 출구 호수공원로
 모가지가 땡강 떨어져 나간 닭들이
 맨살 까집고 나란히 누워 선택하며
 행인들을 유혹하는 눈길에는 눈이 없다.
 배는 갈려서 내장은 도려지고
 뼈와 살만 남아서 튀겨진
 닭발과 똥집은 고가에 팔리고

호수공원으로 가는 길
 기름에 노랗게 바삭 튀겨진 통닭 피부는
 빨간 빛을 쬔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로 뽐내지만 모가지가 없다.

눈들은 호수에 닿기도 전에 삼시간에 사라졌다.

사람들이 눈처럼 녹았다.
저수지가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해도
그들은 본분을 잊지 않았다.

60대 가장의 자살과 어린아이의 실족사
사라진 사람들의 그림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서성거렸고
그들은 두서없는 말들을 지껓었다.
스산한 바람에 까만 청둥오리들의 비명 소리가 실려 왔다.
알 수 없는 온갖 철새들의 하모니도 뒤섞이는 불협화음의 음계는
나무에 걸린 음표들과 함께 춤쳤다.

개 짖는 소리

우수상 | 윤소영

모두가 잠든 밤 가을 언저리
10월 마지막 자락
폭풍 같은 버스 소리만 이따금씩

발끝이 시려 오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말간 얼굴 멍하니 앉아 개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새벽녘에만 짖는 것은 아닐 터
모두가 전쟁터인 양 제 일에만 곤두서 있을 땐
들리지도 않던 소리

‘오호라 네가 이 시간 주인이로구나
쉬지 않고 짚어대는 것이’

피 토하듯 개 짖는 소리 식을지 모르고
한동안 가만 들으니
너도 나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낮부터 지르고 있던 게냐
무엇이 서글퍼서…

마네킹

우수상 | 허 동 원

명품을 걸치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부러운 시선을 받는다면
쇼윈도우 안이라도 좋을 텐데
오늘도 차량 충돌 실험실에 앉아
부서질 시간만 기다려
에어백이 불량이라 터지지 않았네
떨어진 머리통을 들어 올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 머리통은 미용실로 보내 주세요
가발을 씌우면 나름 쓸 만해요
몸통도 아직 버리지 마세요
들판에서 참새라도 쫓을게요
도로 공사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밤새 경광봉을 흔들어도 좋아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항상 공사 중인 걸요
아스팔트가 굳어 단단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무심코 저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심폐소생술을 기다려요
 아무도 달려오지 않네요
 팔다리가 사라졌어요
 대신 가슴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만 떼어
 가판대에 올려놓았군요
 스타킹을 신겨 놓으니
 보일 듯 말 듯
 오늘밤은 몇 테니아일까요
 모두 마네킹처럼 잠들어요
 나도 언젠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손잡이

차상 | 고 승 환

봄비는 시간대
손잡이를 잡고 서서
나를 지탱해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내 옆의 낯선 이도 같은 손잡이를 잡고
속도에 맞춰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림에 몸을 실으며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걸칩니다

서로의 방향은 다르더라도
한 칸 속에 묶여 같은 진동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잡은 손을 놓는 순간
나의 하루는 이곳을 벗어나겠지요

겨울 철쭉

차상 | 김수현

겨울 햇빛이 스미는 앙상한 가지들 사이에
철쭉 하나가 홀로 붉게 폈다

“뒤늦게 폈구나”
지나가는 노인이 혀를 찬다

‘내가 제일 일찍 핀건데’
철쭉이 웃는다

“겨울 바람이 어린 철쭉을 어미 가지로부터 곧 뜯어내고 말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했다

‘야호, 난 이제 자유야!’
철쭉이 웃는다

소공자

차상 | 박건우

커피 한잔에 표 하나만 끊어 줘
다른 건 필요 없는데

혼자서 외롭고 힘들 때라도
오로지 커피 한잔만 털어 넣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가는 길에 인연이 생기겠지
언젠가는 정착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다닐 때
다만 생각나는 것은

그리운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너
너가 준 커피 한잔

모래 같은 사랑

차상 | 진수정

움켜쥘수록 흘러내리는,
사랑은 모래 같아

손끝에서 흘러 빠져나가
결국 남는 건 텅 빈 손바닥뿐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남겨진 모래알들은
남겨진 기억과 사랑의 조각들처럼
손끝에 아릿하게 닿아 온다

모래처럼 흩어졌다고 해도
나의 사랑은 여전히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워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붙잡아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반짝이던 네가
아직도 가슴 깊숙이 파고든다네

할머니의 소풍

최우수상 | 박 찬 미

“할머니, 오늘 저녁도 야채 반찬이예요?”

늦은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던 소녀는 할머니가 차린 저녁 밥상을 보고 내심 실망한 듯 통명스레 말을 했다.

“우리 손녀 야채를 먹어야 건강하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었어?”

더운 날씨 속 시원한 바람 한 점 없이 저녁상을 차려놓은 할머니는 소녀의 말에 화를 낼 법도 한데, 오히려 나긋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미소에 소녀는 아차 싶었는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이날만큼은 유독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전신에 땀을 흥건히 쏟으며 저녁상을 차려준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감정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소녀의 나이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던 열아홉. 대학 입시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부모님의 손길도 많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소녀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맛벌이하던 부모님으로 인해 늘 할머니 손에 자라온 소녀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고 있었고, 매일 학교와 독서실을 전전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한참 밥을 먹던 소녀가 할머니를 보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 우리 내일 공원에 놀러 갈까요?”

“이 더운 날 공원에 갑자기? 너 공부해야 하지 않겠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내일 학교 끝나면 같이 놀러 가

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밥을 먹던 소녀가 갑자기 나들이 제안을 하자 할머니는 놀란 듯 쳐다 보았고 이내 알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할머니와 놀러 갈 생각에 신이 났는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현실을 잠시 망각한 듯 보였으며 공원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바빠 보였다.

사실 소녀의 할머니는 며칠 뒤 생신을 앞두고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알아서 할머니의 생신을 챙기겠지만 문득 일 년 전 할머니의 생신을 생각하자 마음이 편치 못했다. 바쁜 일로 인해 할머니 생신 당일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부모님, 뒤늦게 할머니의 생신을 챙겨 드렸지만 무언가 슬퍼 보이셨던 할머니의 표정. 얼굴 가득히 깊은 고독감이 묻어 있던 할머니가 떠오르자 소녀는 다짐했다. 이번 생신만큼은 할머니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갈 준비에 한창이었던 소녀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평소처럼 차려져 있는 아침상은 찾을 수 없었고 소녀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안방으로 갔다. 끼익하던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저편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열심히 치우고 있었다. 얼핏 보았을 때는 단순히 이불 정리를 하고 계신 듯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이불에 묻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신 듯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소녀의 등장에 할머니는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 갔다.

“으응,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눈을 떠보니 이렇게 이불에 실수를 했네?”

소녀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놀라 이불을 보니 정말로 커다란 소변

자국이 이불 한가운데 새겨져 있었다. 곧이어 퀴퀴한 냄새가 미세하게 코를 찌르자 소녀는 불안한 듯 입을 열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녜요? 아무리 그래도 자다가 이러시다니 마음에 걸려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오늘 병원에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아니야, 늙으면 이럴 수 있어. 할머니 친구들도 가끔 이렇다고 하더라.”

“그래도 병원에 꼭 가보세요. 지금 안색도 안 좋아 보인단 말예요.”

소녀의 할머니는 이따금 아니라며 손을 저었지만, 소녀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힘없이 창백해 보였다. 금세 이불 정리를 마친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리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지 등곳길에 맛있는 걸 사 먹이라며 용돈을 쥐여 주었고, 어쩔 수 없이 밖을 나서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학교 끝나고 빨리 와라. 공원 간다고 했지? 갔다가 칼국수도 사 먹자. 오늘따라 그게 먹고 싶네.”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공원에 가요. 다음에 가요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얼른 학교 가렴.”

소녀는 점점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찢찢했다. 그때 소녀가 할 수 있던 것은 꼭두새벽부터 일하고 계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소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소보다 아주 느리게 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 주고받는 것을 어려워했기에 소녀는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할머니와 통화를 했다. 다행히 할머니의 상태는 좋아 보였고, 소녀만큼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부모님도 안심하시는 듯했다. 따라서 아침

에 있었던 일은 할머니의 실수인 것으로 자연스레 마무리되고 있었고, 소녀는 하교 뒤에 펼쳐질 할머니와의 나들이를 고대하고 있었다. 집과 가까운 공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는 모습을, 할머니와 함께 멋진 사진을 찍는 모습을, 그리고 칼국수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리며 말이다.

그러나 소녀는 5교시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할머니로 인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 터라 애써 좋은 생각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긴장감에 마지막 수업이었던 6교시를 마쳤을 땐 친구의 자전거마저 빌려 힘껏 페달을 밟았다.

‘제발, 나의 예감이 맞지 않기를. 할머니를 마주하는 순간 틀린 것이라고 증명받기를!’

문득 소녀는 집에 갈 때마다 늘 푸른 나무처럼, 한결같이 소녀를 반겨 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몹시 그리웠다. 이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도 소중한지면서 할머니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달렸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 이르렀을 때 보이던 구급차는 소녀의 머리칼을 쭈뼛 서게 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몰려오던 불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들것에 실려 나가던 창백한 모습의 할머니와 그 뒤로 어머니 하며 쫓아가던 소녀의 아버지, 저 멀리 오염하고 있던 소녀의 어머니와 아비규환이 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야속한 아파트 주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소녀의 눈에 비치자, 소녀는 이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곧 할머니가 자신으로 인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자 소녀는 모든 것을 놓고야 말았다.

친구의 자전거를 어떻게 가눌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소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은 정수리에서 쏟아져 붓는 햇볕이 따갑게만 느껴지던, 한 여름날의 일이었다.

소녀가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 단지에 있던 분수대가 얼 정도로 추웠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무더운 여름에 할머니를 보냈던 소녀는 가을이 지날 때까지 할머니 방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애써 피하던 중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싶어 들어간 방에서 소녀는 할머니의 흔적을 은은하게 마주했다.

서랍장 가득 남아 있던 할머니의 내음, 할머니의 손때가 가득 묻어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 조금 전까지 사용한 것 같은 침대 위 베개까지. 소녀는 마치 할머니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꼈으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면서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유품을 정리하던 소녀는 그해 8월에 멈춰 있던 탁상용 달력과 마주했다. 달력 한 장 안에 할머니의 생신과 기일이 함께 공존하다니, 소녀는 달력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곧 달력에 있던 작은 글씨를 발견하자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녀와 소풍.’

8월에 남겨진 글씨라곤 26일에 소풍이라는 글자뿐. 소녀는 문득 할머니와 함께하기로 했던 공원 나들이가 떠올랐다. 칼국수까지 먹기로 약속했던 즐거운 날이었었는데, 할머니는 무엇이 급해서 그토록 빨리 떠나셨을까? 손녀와 함께하기로 했던 날을 소풍으로 생각까지 하셨는데 말이다.

그때 소녀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우리가 가기로 했던 공원보다, 우

리가 있는 이 땅보다 더 특별한 곳으로 소풍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있던 깊은 죄책감에서, 할머니를 향한 빠져린 그리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꼭 붙들고 있던 할머니를 그제야 조금씩 보내줄 수 있었다.

이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소녀의 일화는 모두 내가 겪은 일이라는 것. 당시 어리고 철없던 소녀였던 나는 할머니를 보내고 난 뒤 많이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기록하셨던 소풍이라는 글자를 보며 이후로도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과거의 그날 할머니와 함께 소풍을 떠나진 못했지만, 더 좋은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며 늘 마음을 다독였던 것 같다. 그 언젠가 시간이 흘러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소풍을 다니고 싶다. 그리고 그날 먹지 못했던 칼국수도 마음껏 먹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소녀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다.

어머니의 선물

우수상 | 장 월 남

솜틀집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내 집을 방문했다. 며칠 전 전화로 약속을 잡았었다. 나는 그냥 솜을 타는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여주인은 반색하며 물건을 보고 이야기하자며 굳이 방문하겠다고 했다. 따로 물리칠 수도 없어 그러마고 약속 날짜를 잡고 말았다.

버리지도 못하고 껴안고 있는 목화솜 요가 있다. 어머니가 내 혼수로 마련해 줬었다. 본래는 이불과 요 한 채인데 오래전 이것을 합쳐 요만 세 개로 다시 만들어 줬다. 나는 이제 더는 필요 없다며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버리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미국 동생네로 가셨다.

나도 차마 버릴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목화의 내력에 어머니의 노동과 짧은 날의 추억, 시골집의 정경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혼수 이불이어서 버리자니 마음이 쓰렸다. 남편을 추억하는 물건이니 망설임이 따랐다. 버리고 싶은 마음과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돌했다.

시골집에는 목화밭이 있었다. 집에서 산길을 돌아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건물과 관사가 보이는 외진 곳이었다. 학교는 큰 신작로를 따라 등하교하는 다른 길이 있지만 밭은 집 뒤꼍을 지나 낮은 산길로 가는 곳이었다. 목화밭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로 인가도 없는 곳이어서 낮에도 무서웠다. 그 밭에는 다른 작물은 거의 심지 않고 주로 목화만

재배했던 것 같다.

생활에 당장 필요한 작물은 집 옆 넓은 텃밭에 심었는데 어머니는 텃밭에 없는 채소 심부름을 시키고는 했다. 무슨 채소였는지 기억은 없지만 나는 목화밭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 위로 공동묘지가 있어서 무서웠다. 어머니를 따라가도 콩무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붙어서 갔는데 혼자 갈 때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어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보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어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 올려 주위를 가리게 하지 않았을까.

어쩌다 다래라고 하는 덜 익은 목화 열매를 따 먹었지만 어떤 맛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약간 달착지근하고즙이 많았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얀 솜이 될까 의아해했던 어린 날이었다. 다 익으면 벌어진 꼬투리에서 흰 솜털이 마치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억센 줄기와는 다른 포근함이 손끝에 만져졌다.

어머니는 그 면화 밭에서 거둔 솜으로 내 결혼 이불을 마련했다. 그 것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화를 따고 씨앗을 분리하며 갈무리를 한 세월이 10년은 넘지 않았을까. 사 남매 중 맏이였던 내게 준 가장 큰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버리려고만 했다.

세상이 변하면서 화학솜이 나오고 명주솜, 양, 오리, 거위털 이불까지 목화솜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 나도 자연스레 시류를 따라 생활하게 되었다. 여행할 때 방문한 나라의 특산품 매장에서 양털 이불이나 명주솜 이불을 사 오다 보니 목화솜은 무거워 유용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편리한 제품들에 마음이 갔다.

더욱이 남매가 결혼하고 분가하니 요를 사용할 일이 없고 부피만

차지하는 애플단지가 되었다. 어쩌다 손주들이 방문하면 침대가 없는 방에 널찍하게 펴놓고 같이 누워 잘 때면 마음이 훈훈하기도 했지만 이용은 제한적이었다.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방문이 잦아지면서 엄마가 만들어 준 요가 긴요하게 되었다. 몇 해 전 두 채만 다시 솜을 탔다. 솜은 부풀어 올라 가볍고 포근했다. 요에 누워 본 딸이 물었다.

“엄마, 우리도 필요한데 이런 목화솜 요는 어디서 구입해요.”

딸이 요를 탐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세 채 중 남아 있는 한 채를 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이다. 아들로부터 태국에서 일곱 명의 가족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중 사돈은 친구랑 호텔에 머물겠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아들 며느리가 고생스러워 내 집에 머물기를 요청했다. 그동안 나는 남쪽으로 봄나들이를 하면 될 일이다. 그러자니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게 잠자리가 되었다. 나는 이부자리만은 꼭 풀을 먹이는 습성이 있다. 베개는 물론 이불보, 침대 커버도 항상 풀을 뽀뽀하게 먹인다. 어린 날의 습성이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못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풀 먹인 이불깃을 다듬질해서 씌워 준 감촉을 잊지 못해서다. 겨울날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 소리인지, 그리고 코끝에 남아 있는 미세한 풀의 냄새를.

오늘 묵은 요 한 채를 가지러 솜틀집 주인이 찾아온 거다. 거실에 펼친 요 속을 살핀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요새는 이런 솜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수입 솜인데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솜이 많고 깨끗해서 2인용 요나 얇은 이불과 1인용 요 한 채 만들면 좋겠어요. 소독해서 잘 만들어 줄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혹해서 2인용으로 부탁했다.

일주일 만에 요를 받았다. 거실에 펼쳐 놓고 그 위에 누웠다. 몽게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자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해졌다. 엄마의 사랑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지혜는 철없이 나이 든 나를 되돌아보게 했다.

새로 산 요 커버에 풀을 먹였다. 다듬이질을 할 수 없으니 발로 밟아 숨을 죽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사돈도 좋아할까 조금은 걱정되었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모두 돌아가면 딸에게 물어봐야겠다.

“요 필요해?”

자전거의 비상(飛上)

우수상 | 고 미 령

시골의 한적한 길을 따라 걷던 중이었다.

대문이 열린 한 주택의 마당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낡은 자전거가 눈에 들었다. 어른용 자전거와 함께 세 발 자전거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이 잠시 그려졌다.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있노라니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나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부터 나는 자전거가 좋았다.

오토바이는 요란한 굉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갔지만, 자전거는 직선과 곡선을 부드럽게 그려 가며 조용하게 움직였다. 음악의 속도로 비유하자면 안단테(Andante: 느리게) 정도가 알맞겠다. 폐달의 힘으로 고요하게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목표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여겨졌다.

자전거는 한때 우리 삶의 일부였고,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다.

해 질 녘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마치 알람 시계처럼 자전거의 '따르릉' 소리가 늘 삼 남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저만치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맨 앞자리 보조 좌석에 막내를 앉히고 뒷자리에는 언니와 나를 태우신 뒤,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주셨다.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동네의 정경이 파노

라마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큰 호사(好事) 중의 하나였다. 매일 자전거 출퇴근으로 고단하셨을 아버지의 고충은 생각지도 못한 채 아버지와 자전거 일주를 반복해서 즐겼지만, 당신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휴일에는 우리를 부러워했던 동네의 아이들까지도 불러 모아 순서를 정하여 자전거를 태워주곤 하셨다.

자전거는 한때 마을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한밤중에 아이들이 배탈이 나거나, 새벽에 급하게 약을 구하러 가야 했을 때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자전거에 오르셨다.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여기셨다. 단단한 쇠틀에 고무바퀴 두 개가 전부였지만, 자전거는 그렇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으로 각인(刻印)되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식의 수술비까지 운운하며 큰돈을 빌려 간 아버지의 친구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집안이 발각 뒹집혔다. 안타까운 형편의 친구를 돕기 위해 보증을 섰던 아버지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큰 빚이 생겨 버린 것이다. 집은 물론이고 돈이 될 만한 어떤 것이라도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했다. 거기엔 물론 자전거도 포함되었다. 되도록 값을 잘 쳐준다는 곳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갔지만, 형편없는 가격을 제시한 주인은 자기들도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입을 찢룩거렸다. 가게 문턱을 나오는 나와 아버지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가게로 뛰어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다.

“아저씨! 자전거 다른 곳에 팔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어

서 다시 사러 올 거예요!”

남물이 펑 돌았다. 아버지의 출퇴근길 교통수단이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도구였던 자전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기도 했고, 당신의 삼 남매와 동네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일상이기도 했다. 응급 상황마다 동네 주민을 살렸던 은인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까지도 담겨 있을 소중한이라고까지 여겨졌다. 자전거를 두고 나오는 발걸음은, 마치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온 이후의 느낌처럼 무겁기만 했다.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의 프리포즈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의 입에서 전해진 ‘자전거’라는 따뜻한 단어 속에,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과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한꺼번에 달려 나오는 것만 같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 보니,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태워 주시는 자전거를 타본 기억은 있어도 직접 타본 적은 없었다. 그의 지도하에 자전거에 올랐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쉽게 타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어려운 것 같았다. 종이 한 장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일자로 된 자전거를 타고 온전히 서 있는 건 불가능이라고 계속 투덜거렸다.

“요령이 있어요. 타다가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재빨리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무게 중심을 반대로 잡아 핸들을 돌려주고요. 자전거의 매력은요,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에 정신을 차려서 재빨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지요. 살다 보면 절망으로 기울어지는 날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희망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면 돼요. 나와 같이 삽시다.”

자전거를 배우면서 받게 된 기습 프리포즈였지만, 고민하고 말 것도 없는 일이었다.

오래전 마음속에 응축되었던 자전거에 대한 애뜻함과 따뜻함이 남편의 문장들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져,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20년 전의 어느 날, 노을 지는 풍광을 뒤로한 채, 딸아이를 자전거 앞 보조 좌석에 태우고, 나는 남편의 뒷좌석에 앉아 셋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5살 딸아이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든든한 등에 기대어 자전거 일주를 하는 그림은,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태워 주신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따뜻함과 닮아 있었다.

남편은 내게 프리포즈를 한 것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았다.

민었던 죽마고우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에게 닥칠 어려운 상황보다 딸아이 또래 자식이 둘이나 있는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대문 앞에 몰래 쌀포대를 두고 왔다.

돈은 또 벌어도 되지만 사람을 잃을 수는 없는 거라 말하면서….

어느 추운 겨울 퇴근길에서 전봇대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던 생면부지의 할머니에게도 국밥을 사드리며 택시비 3만 원을 손에 쥐여드리고 오던 착한 남자…,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희망으로 핸들을 돌리던 남편에겐, 이후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며 하던 일도 모두 잘 풀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내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했던 말처럼, 그는 위기의 상황들을 현명하게 다시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자전거의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달려가려는 의지가 아닐까? 그것은 나아가려고 하는 견고한 결단이며, 더 이상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발을 얹어 놓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열심히 페달을 돌려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의 전진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속 엔진 삼아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밤이 되어 멀리서 보름달이 아득하게 보일 때쯤.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자전거 타고 달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럼.”

한때 우리 삶의 일부였고 그리움이었으며 행복이었던 자전거가 말한다. 절망에 닥쳤을 때 무게 중심을 희망으로 꿈꾸는 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飛上)할 수 있는 거라고….

숲의 선물

차상 | 최양수

어떤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치유된다고 한다. 내겐 그 단어가 바로 숲이다. 숲은 모든 이에게 손을 내밀고, 너른 품을 내어 주며, 새로운 길을 보여 준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病魔)는 내 삶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 어느 날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나는 대동맥 박리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마주하게 됐다.

응급 수술로 위기를 넘기고 퇴원했지만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호흡이 요동을 쳐,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 걸음은 한없이 느려졌고, 작은 돌뿌리에도 자주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죽음이 언제 나를 집어삼켜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바윗덩이 하나를 가슴에 얹어 놓은 것처럼 답답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친 건 숲이었다. 언젠가 큰 실패를 겪고 건강까지 잃은 한 중년 남성이 숲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는 TV 속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아내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서 의미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도,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병에 대한 공포도, 팍팍한 일상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나의 절박한 마음

이 전해졌는지 아내도 내 뜻에 흔쾌히 따라 주었다.

우리는 처갓집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으로 향했다. 숲에서는 무슨 일이든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바닥 난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휴양림 안에 위치한 숙소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온통 초록빛 숲이 펼쳐졌다. 마치 내게 잘 왔다고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았다. 가슴속 깊이 숲이 뿜어 내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숲으로 들어갔다.

뺨뺨하게 늘어선 잣나무 사이로 난 숲길. 사부작사부작 걷는 숲길은 아스팔트길을 걸을 때와는 느낌부터가 달랐다.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어머니의 품속인 양 편안했다. 코끝으로 스미는 은은한 흙냄새 역시 잔뜩 곤두서 있던 신경을 누그러트렸다.

숲속 깊숙이 걸어 들어가 푸른 신록과 마주했다. 싱그러운 숲의 기운이 먹구름 가득한 나의 눈과 귀를 씻고, 가슴을 씻어 주었다. 알싸한 피톤치드 향이 온몸을 감쌌다. 숲에 온 게 얼마만인지. 팍팍한 일상에 치여 사느라 자연을 멀리 하고 살아온 지난날에 아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미안해졌다.

산뜻한 마음과는 달리 몸은 매우 무거웠다. 등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어김없이 숨은 가빠왔다. 몸을 돌려 다시 내려갈까 고민하던 찰나였다. 몸과 마음이 꺾여 잔뜩 주눅 든 나를 아는지 한줄기 바람이 등을 시원하게 훑고 지나갔다. 지그시 눈을 감자, 바람에 너풀거리는 나무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포기하지 말고 숲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 보라는 응원이었던 걸까. 힘을 얻은 나는 돌아서지 않고 곧장 앞을 향해 걸었다. 아내가 묵묵히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었다. 종종걸음으로 먹이를 찾으려 다니는 다

람쥐도 눈에 들어왔다. 삶에 열중하면서도 유유자적 숲을 노니는 모습이 더없이 부러웠다.

깊은 숲속에는 복잡한 마음을 털어내려는 사람들과 다시 살아갈 힘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털어놓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숲은 가만히 듣고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날 밤, 피곤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온갖 걱정과 잡념들로 잠 못 이루던 지난밤들과 달리 모처럼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은은한 풀벌레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아직 고요에서 깨어나지 않은 숲길을 홀로 산책했다. 견고한 숲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인내해 온 나무들의 지난한 시간들이 느껴졌다. 얼핏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대자연의 모습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다.

‘그래. 겨울을 건너온 나무가 무성한 잎을 단박에 내놓을 수 없듯이, 나 역시 멈추어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더딜지라도 힘을 내서 더 나은 시간을 만들자.’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져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어디론가 훌훌 날아가 버린 뒤였다. 어제까지의 날선 긴장감은 어느덧 충만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귀가 열린 덕에 사라락사라락— 나무들이 내는 청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 삶에도 다시 맑게 갠 날들이 찾아올 거라고, 숲을 가득 메운 나무들이 내게 말하는 듯했다. 숲은 내게 초록빛 꿈을 심어 놓고, 치열하게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을 선물해 주었다.

휴양림에서 돌아온 후로도 숲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내 가슴속 가득 초록빛 숲이 빼곡하게 펼쳐지곤 했다. 눈을 감아도 휴양림에서

보았던 초록의 잔상들이 아른거렸다.

나는 숲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낡고 노후한 집을 리모델링하듯 내 삶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일단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 두었던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했다. 무엇보다 초록의 조각들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스스로를 다독여 지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도 마음속에서 지웠다.

앞으로 또다시 삶이 휘청거릴 때면 나는 지체 없이 숲으로 달려갈 것이다. 생기와 에너지를 한껏 품은 숲이 내게 다시 위로와 안정을 선물해 줄 것을 기대하며.

행복의 향기

차상 | 정 희 아

“제발 이제 포도 농사 그만해요. 매일 아프다고, 힘들다면서 왜 손을 놓지 못해요?”

“그래말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지...”

포도나무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툭툭거리는 내 목소리는 엄마의 묵묵함이 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나에 비해 엄마는 어느새 나를 앞질러 너덧 번째 포도나무를 손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 나무에 줄지어 매달린 포도 송이들은 마쳐야 할 숙제로 마음을 바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 해 기울였던 정성의 결과물로 넉넉함을 주기도 했다.

아빠, 엄마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는 포도밭, 언젠가부터 이곳에 들어설 때면 마음이 아릿해진다.

서울살이를 접고 이곳으로 내려온 것은 순전히 아빠의 건강 때문이었다. 한창 일에 전념해야 할 때 아빠는 건강이 나빠져서 일찌감치 퇴직을 해야 했고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포도 농사였다. 엄마의 친구분이 살고 있는 주변으로 이사를 오고 집 뒤편으로 자리 잡은 자그마한 포도밭은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었다.

이사 온 후, 두 살 터울인 언니는 괜한 투정으로 방에 들어앉아 공부하는 게 전부였다. 반면 나는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이 좋아 틈만 나면 온 동네를 뒤잡으며 내달렸다. 발밑으로 느껴

지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은 모든 걸 품어 주는 넉넉함 그 자체였으며 내딛는 대로 보여지는 발자국은 괜찮다는 다독임이었다. 포도밭은 늘 나와 함께였다.

동이 트기도 전 졸린 눈을 부비며 포도밭으로 나가는 엄마의 뒤를 따라나서기도 하고, 가지치기 하는 아빠의 사다리에 올라 카수가 되어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포도밭으로 달려가 머리에는 두건을, 넉넉한 몸매 바지를 입고 뚝소리 나게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농부로 한몫을 담당하고, 엄마가 담근 포도주를 흠뻑 마시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 온 동네를 발각 뒤집기도 했다.

거기에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러 정신없었던 포도 농사는 자리 잡을 때까지 힘듦은 당연함으로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마가 있었다.

포도 농사를 시작한 첫 해, 물론 주변의 도움으로 대부분 무리 없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툰 손길의 대가는 생각보다 처참했다. 그래서 내다 판 포도보다는 남은 포도가 더 많았고 대부분 즙으로 만들어 팔아야 했다. 수확이 끝나 텅 빈 포도밭에 주저앉아 성글성글한 포도송이를 바라보던 엄마의 헛헛한 눈빛은 한동안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렇게 정직함이 기본이었던 포도농사는 엄마의 속을 무척이나 바질거리게 하더니 언니가 교복을 입고 다닐 때부터는 든든함으로 본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른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도 좋아져서 포도밭에는 늘 아빠의 모습이 함께 했다.

참으로 신기한 게 포도의 수확 양이었다.

처음에는 바편 손길에 적응하느라 엄마의 발걸음을 바질거리게 하더니 차츰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엄마의 얼굴에 웃음 짓게 해주고 언니

와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손이 부족할 정도로 가지마다 튼실한 포도송이가 줄지어 열려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 유학 생활을 버티어낼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길도 열어 갈 수 있었다.

이제는 언니와 나의 삶의 터전은 서울이 되었고 나는 결혼한 후 또 다른 삶을 열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포도밭과 손절한 것을 결코 아니었다. 그동안 몸에 배었던 일들은 때가 되면 스멀스멀 조바심으로 올라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달려가곤 했다. 그래서 포도송이의 알알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포도 한 알 속에는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팔뚝의 굵은 힘줄 속에 흐르는 묵묵한 열정이, 또 한 알 속에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정성이 또 다른 한 알 속에는 놀이터로, 섬으로, 일터로 함께 해온 나의 성장이다.

그 소중함이 오롯이 전해져 옴으로써 포도를 마주하면 든든해진다. 반면 세월이 흐른 만큼 흰머리가 수북한 아빠, 엄마의 힘겨움은 언젠가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다가온다.

“자, 한 잔 받으렴. 이 포도주는 묘약이야. 세상사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 한 잔 마시면 모든 게 오케이야. 이 포도주는 5년 전에 담근 거지. 왜 그때 흥작이었잖아. 그루갈이를 해야 했는데 네 아빠 고집에 다음 해로 넘겼다가 그런 사단이 난 거야. 하여튼 네 아빠 고집은 못 말려.”

어느새 엄마는 포도밭 앞쪽에 있는 평상에 조출한 술상을 차려 놓았다. 가슴속의 답답한 속내를 풀어내는 포도주 한 잔에 엄마 얼굴은 밧그레졌고 언뜻언뜻 비치는 웃음은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맑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포도밭에 내려앉은 석양은 쉽 없이 붉음을 풀어내

며 엄마를 품어 주었다.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품에서 향긋한 내음이 났다. 달콤한 포도를 품은 행복이라는.

그때는 몰랐던 일

차상 | 박신영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개량 한옥. 아버지 형제의 자식까지 더해져 여덟 식구의 대가족. 좁은 집. 좁은 방. 허름한 공간들.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루한 일상의 피로감들은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당시의 나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마냥 해맑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중 유일하게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 재래식 변소. 차마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의 말 그대로 ‘변소’였다. 하지만 그것을 아니 정확히는 ‘그것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길들여졌고 따라야만 했다. 결국 내가 택한 방식은 식구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 볼일을 끝내고 머리를 감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늦거나 순서를 빼앗기면 웅가 직전의 배를 움켜쥐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미적지근한 물을 써야만 했기 때문이다.

재래식 변소만큼 집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궁이였다. 연탄 두 장을 세로로 구멍 맞춰 달구면 방도 뜨끈해지고, 그 위에 물을 가득 채운 커다란 들통을 올리면 밤사이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다. 물론 연탄을 갈 때 일산화탄소를 두어 모금 마셔 주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그 매캐하고 약간 텁텁한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취하는 듯한 묘한 맛은 제법 중독적이었다. 하지만 오래 마시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연탄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불길에 얼굴이 일그러지기 일쑤였다.

커다란 들통에서 밤사이 뜨거워진 물은 변소를 가장 먼저 쓴 내 몫이었다. 물론 내 뒤로도 들통 물을 쓸 사람들이 즐비하게 이어졌기에 물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마당에 쭈그려 앉아 수돗물로 머리를 적신 뒤 비누칠을 한 다음 행굴 때만 뜨거운 물을 썼다. 딱 두 바가지. 그걸 찬물에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네댓 바가지의 물로 만들면 말끔해졌다. 그리고 다시 찬물 두 바가지를 얼른 넣었다. 다음 누군가가 쓰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질 테니 말이다.

그로부터 2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흘렀다.

엄마는 유방암에 걸렸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그날은 세 번째 항암치료를 받는 날이었다. 신혼 초였는데 이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맞물려 다행히도 내가 엄마의 모든 치료 일정을 동행할 수 있었다. 하룻밤 병원에서 보내는 항암치료도 거뜬했다. 엄마랑 오붓이 가까운 곳으로 놀러 다니오는 기분이 들었다.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다행히 고통은 크지 않았다. 훗날 완치도 되었다. 무릎 수술할 때의 겁스가 불편해 머리 감는 것도 힘들었는데 암치료 과정에선 그런 것도 없어 좋다고 농담도 하셨다. 하루 앞일도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저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쓰는 그 시간이 힘들다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7인실 병원. 세 번째라 엄마도 나도 항암치료 베테랑이 되었다. 부산스러울 것 없이 밤을 맞았고, 엄마는 내게 그리 자주 하지 않으셨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당신 살아온 60여 년의 인생을 타임머신을 타고 순식간에 가로질렀다. 때와 장소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내내 엄마 혼자 짊어진 고통과 슬픈 감정들로 채워졌다. 마냥 듣기 힘들어 내가 알고 있는 옛

날이야기로 살을 붙였다. 그러자 엄마는 머뭇거리시더니 피식하고 웃으셨다.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 용가를 싸러 가는 막내아들을 다 알고 계셨다. 다른 사람들은 평평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채워 맘껏 썼는데도 위로 형이 둘, 아래로 사촌 여동생이 둘이라 그 물마저 아낀 나를 어디선가 보고 계셨다. 엄마를 도와 부엌에서 안방까지 밥과 반찬을 나르고 수저를 놓았던 분주한 아침을 고스란히 떠올리셨다. 넉넉하지 않아 빈갈아 가며 옷을 입기를 반복했었다. 비싼 옷은 아녀도 지저분하게는 입히지 않겠다며 퇴근하고 오셔서 내가 입은 옷을 손빨래 하셔서 다음 날 아침에 입고 가게 만들어 주셨다.

아침을 차려 식구들을 먹이는 중에도 엄마는 함께 밥상에 앉지도 못하셨다. 그럴 공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 급한 빨래라도 해서 옥상에 널어야 했고, 설거지까지 끝내고는 당신도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가 머리를 감기 위해 들통 뚜껑을 들어 올리면 뜨거운 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셨다. 물은 써도 채우는 걸 대부분 아니했다고 하셨다. 찬물로 머리 감는 일이 일쑤였다고 하셨다. 그 누구도 엄마를 위해 들통에 물을 남겨 두지 않았었다.

나 또한 공범이란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넌 아니라고, 다 안다고, 엄마는 날 토닥여 주셨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셨다. 짧지 않은 수다의 끝은 들통 이야기로 매듭을 지었다. 피곤하셨는지 금세 잠드셨다.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리 만무했다.

그때는 몰랐던 일들... 아무도 몰랐던 일들...

미안한 마음은 기껏 눈물로 흘려보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팔을 뻗어
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 주셨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등반이

차상 | 주 선 미

새벽 어스름이 아직 창가에 머물고 있는 시간, 우리 집은 언제나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하루를 열었다. 매일 아침 이런 소음과 함께 잠에서 깬다면 지긋지긋한 휴대전화의 알람이 얼마나 청량하고 우아했던가를 단박에 깨닫게 될 것이다.

부엌을 끼고 있는 단칸방. 살림이라고는 낡은 서랍장과 그 위 누렇게 바랜 이불 몇 채, 스탠딩 옷걸이, “드르륵 소리”의 주인공인 재봉틀이 전부였다.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재봉틀 앞에 가 앉았고 하루 종일 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전날 일감을 주고 다음 날까지 완성해 달라는 공장 측 재촉 때문에 엄마에게 재봉틀의 핸드휠을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재봉틀로 마감질 해놓은 실크 블라우스를 내 앞에 켜켜이 쌓아 두고는 녹슨 쪽가위를 손에 쥐어 주었다. “사이사이 연결된 실밥 좀 잘라 줘.” 생각해 보면 그리 편한 일이 없는데도 당시엔 어찌나 끔찍하던지 눈앞에 쌓여 가는 블라우스의 거대한 산을 피해 친구네로 피신을 가는 날도 더러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밥줄이었으므로 엄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다. 낡은 재봉틀이 삐걱거려 기름칠을 해주느라 엄마의 손에서는 언제나 휘발유 냄새가 났다. 소음과 냄새, 해도 해도 줄지 않는 일에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 오래된 기계를 그러안고 온종일 박음질만 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다.

중학교 삼 학년. 고교 진학 상담 문제로 엄마가 학교에 온 일이 있었다. 입학과 졸업을 제외하곤 학교에 방문한 적 없던 엄마가 학교에 온다고 하니 마음이 묘했다. 마침 쉬는 시간이었고 엄마가 온다는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 시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멀리서 오고 있는 엄마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엄마가 자주 두들겨 대던 허리 모양을 보고 알았던 거다. 엄마의 허리는 엄마가 일하며 살아온 세월만큼 굽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얼굴로 피가 몰리는 듯했다. 아직 쉬는 시간을 마치는 종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나는 누가 불세라도 망치듯 교실로 올라왔다. 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를 뒤로한 채.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여전히 재봉틀과 씨름 중이었다.

“궁상맞게 왜 그렇게 몸을 구부리고 일해? 친구들이 할머니 온 줄 알았을 거 아냐. 제발 저 구질구질한 의자도 좀 갖다 버릴 수 없어?”

“왜,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하디?”

“의자, 저 의자 좀 버릴 수 없냐고.”

그날따라 의자마저 처량 맞아 보였다. 앉는 거 외엔 아무런 기능도 없는 싸구려 의자.

“여기서만 앉아 일해 그런지 이게 제일 편하더라.”

“편하긴 개뿔이. 그거 주워 온 거잖아. 우리 거지야?”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적였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만들어 놓은 통장이 있었다. 천 원, 이천 원 모아 두었던 쌈짓돈이 십칠만 원 정도 되었다. 백만 원을 모아 예금으로 바꾸어야지 하던 걸 은행으로 가서 몽땅 찾아 시장으로 갔다. 골목 꼬트머리에 가구를 파는 매장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비싸고 편한 의자가 얼마냐고 물

었다. 사장님은 허허 웃으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비싼 의자를 찾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보여 준 의자는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뱅뱅 돌아가고 높이도 조절되고 바퀴도 달려 있다. 무엇보다 허리를 젖히면 등을 기댈 수도 있었다. 가격을 여쭙었더니 사장님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 “이십이요?” 너무 비싸다. 사장님 말론 유명 브랜드를 카피한 거라 그 가격에 판매된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이 어머니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효심이 예뻐 절반 가격만 받겠다고 하셨다.

배달도 가능하다 하여 나는 곧장 결제했다. 의자가 도착한 날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다. 엄마를 피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렇게나마 속죄하려 한 것인데 엄마는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자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일을 할 때는 물론이요 식사할 때나 쉴 때도 깜빡 잠이 들 때조차 그 의자 위에서였다. 심지어는 십 년도 더 지나 낡고 해진 의자를 지금까지도 고이 모셔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버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자라고, 자란 만큼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었어도 의자를 선물했을 때 내어 준 등받이 역할을 의자는 아직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엄마는 허리뿐 아니라 마음도 그곳에 기대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반딧불이

최우수상 | 정 인

어릴 적 꿈꿨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며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되는 날을

이제 그곳에 가려 해
나의 비행을 시작하는 그곳으로
물론 쉽지는 않지

달려드는 포식자들
함정을 치고 무기를 휘두르지
상처를 받더라도 괜찮아
다시 날 수 있는 걸

거센 바람들
날 가로막으려는 듯하지
굳이 맞설 필요 없어
날개의 각도를 조정해 이용해

잡아 가두려 하는 거대한 손들

위험한 손들을 피해 날아
 잡혀서는 안 되지
 내가 기다린 날을 넘겨줄까 보나

더 높이, 더 빠르게
 밝게 빛나서 나타날 거야
 나의 길들은 내가 비출 거야

자유롭게 나는 나
 어두운 이곳을 비추는 나는,
 작지만 많은 반딧불이

이름 없는 영웅들

우수 | 고 윤 울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이른 때에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 광주의 시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떠나보내어서는 안 되었던 그 순결한 영혼들을 기억하십니까.

비장한 계엄군은 그토록 차갑고 무심한 얼굴로 우리들을 마구 짓밟고 고문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우리를 좁아터진 감옥에 가두고, 볼펜으로 손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멍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에게서 한없이 푸르고 풋풋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반짝이는 청춘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년, 소녀들에게서 첫사랑의 설렘, 또 고통과 아픔 그리고 무궁무진한 미래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의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작 모나미 볼펜 하나에 꾹꾹 묶여 있던 그들의 영
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 빼앗긴 몸과 마음, 또
모든 것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마음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흘렸던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매일 밤 흘렸을 그 눈물들을 고이 모시고 일
찍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할 숭고한 영혼들을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오늘도 나는 마음 한 켠에 고이 모셔 두었던

우리의 이름 없는 영웅들을 꺼내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가을

우수상 | 송 유 찬

가을은 눈으로 보면
빨강빨강 단풍잎이 있고

가을을 코로 맡으면
구리구리 노란 은행이 있지

가을을 맛을 보면
고소고소 맛있는 밤이 있지

스마트 시티

차상 | 차지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스마트한 세상
원하는 생각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려 주는 센서
에너지로 쓰여지는 쓰레기의 변신과
자동차가 혼자 갈 수 있는 세상
그러다가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지금이 참 좋아
스마트보다는 스위트한 공간
모두가 꿈꾸는 미래

그림자

차상 | 차재원

내 옆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심심하고 짜증 날 때에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있어 주는 그림자
 혼자 있고 싶어도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돌아
 흑백 사진을 찍고 있는
 그림자

이방인 탈출

최우수상 | 김정인

프랑스의 기숙사 창문 너머로, 찬바람이 서서히 내 방을 파고든다. 나는 이방인이다. 아침마다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낯선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루가 당연한 듯 나를 기다린다. 똑딱똑딱, 시간의 메트로놈에 갇힌 듯한 공포가 내 가슴을 옥죄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동양인이다. 그러나, 이방인인 나를 가두는 것은 동양인이라는 사실이 아닌, 내가 날 속박하는 편견과 두려움이다.

한국을 떠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요즘은 한류의 부상 덕에 외국 사람들도 한국 많이 좋아하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한류라는 얇은 외피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 침대에 홀로 누워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하얀 피부의 아이돌이 등장할 때, 내 룸메이트 옆에 앉은 프랑스 친구들은 ‘태닝’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때마다 나를 감싸던 동양의 미가 이방인의 껍데기가 되어 내 존재를 쪼갬다. 다름이라는 벽은 곧잘 틀림으로 변질되곤 한다. 차이가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삶이 나를 사이에 두고 이리저리 당긴다. 한쪽은 개성과 자유를 말하고, 다른 쪽은 책임과 노력을 강요한다. 나는 이 두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 청춘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몰래 공부하며, 내 한국적 성향을 숨기는 데에만 힘을 쏟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을 숨기려 애썼

다. 그들의 자유는 내게 억압으로, 그들의 즐거움은 내게 허무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 속에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다.

그리움은 무겁다. 친구들이 모두 파티에 간 뒤 홀로 남은 기숙사 방에서, 낯선 언어의 지문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밤들. 새벽 4시가 되면,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제주도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복도에서 몰래 전자레인을 방으로 끌고 오며 웃고 떠들던 나날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빛나던 기억 속에 머물고, 나는 그곳에서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나 여기, 이방인인 나는 공허하다. 술에 의지해 즐거움을 찾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건디다 보니, 어느덧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캠핑 활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며칠 만에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닫게 했다. 몇 년을 함께한 외국 친구들 속에서조차 느낄 수 없던 연대의 감정을, 나는 단 며칠 만에 다시 경험했다. 아득히 그리웠던 평온함과 소속감이 나를 둘러쌌다. 이방인으로서 쌓였던 긴장과 고통이 무너져 내렸다.

프랑스로 돌아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더 이상 이 낯선 땅에서 버틸 이유가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문구가 떠올랐다. “힘든 곳에서 버티지 마라. 다른 데 가면 된다.” 그러나 나는 그 조언을 거스르기로 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취감을 발견하고 싶었기에, 대신,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행복은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프랑스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제한해야 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한국에서의 나였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성장과 변화를 이곳에서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나를 확장해가는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으려 한다. 나를 이방인으로 규정했던 것은 이 사회도, 사람들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 타지 생활의 첫 해, 나는 과거의 나를 너무도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리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고자 한다. 프랑스의 자유와 창의성은 나를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이방인으로 느끼게 했던 순간들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다가온다. 한국에서 익숙한 것을 버리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나는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가치들과 경험들을 받아들이며 나 자신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두 번째 해,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기회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기대한다. 나의 세계는 두 문화 사이에서 점점 더 넓어져 나의 끝 없는 가능성을 펼칠 무대가 되고,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아간다.

살아가는 것과 페달을 굴리는 것

우수상 | 이예린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릴 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도전해 보다가 넘어지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계시는 걸 발견하고는 약간의 배신감과 혼자 탔다는 뿌듯함이 공존했던 그 시절의 경험이 바람을 타고 불쑥 생각난다. 그렇게 추억에 젖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문득 자전거를 타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가? 처음으로 페달을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법은 부모님이 알려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 혼자 타게 되면 부모님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 꼭 다 커서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겹쳐 보인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페달을 밟는 것은 낯선 이들과 교류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지 배워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그 한정된 길에서 기초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익힌다. 이는 꼭 어린아이가 지켜야 할 도덕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일련의 시간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나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한정된 길이 확장되어 자신만의 여러 갈림길도 보이고, 때로는 내가 어느 길로 갔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바뀌는 것 역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길은 험난하고 어렵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길은 완만하고 안전한 모습조차 닮아 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 주어진 운전자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 길이 원망스러울지 몰라도 험난한 길에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는 훗날 내 길이 완만해지기 위한 시작점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완만한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편안하게 갈 거란 보장도 없으니 말이다. 누가 더 좋고 나쁜 길에 자전거를 굴리는지 신경 쓰기보다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극복해 나가는지, 훗날 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길고 험난한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가 생겨 돌이키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인생은 자전거와 달리 내가 원하는 길로 다시 유턴하지 못한다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일직선의 길에서 페달을 굴리다 보면, 돌이키고 싶었던 일들도 추억으로 남고,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 미래의 나에게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며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페달을 밟고 달리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더 높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후회와 좌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앞만 보고 달리다 다리가 저리고 팔이 뻣근하다면 잠시 멈춰 서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조금 쉬어 갈 수도 있다. 넘어지면 잠시 쉬면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해 보면 된다. 잠깐 멈춰 쉬어 가는 것이 느리고 뒤처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성장할 발판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 점차 혼자 탈 수 있게 되는

것도,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닮아 있다.

살아가는 게 자전거와 같다면, 난 그 누구보다도 즐기며 탈 자신이 있다. 뒤통자라고 생각해 페달을 굴리는 것을 멈춰 버린 사람들과 더 이상 자전거 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글이다. 또한, 내 미래의 모습과도 겹쳐 있을 것 같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기도 하다.

낮설게 하기에서 친근함까지

라은채 | 시인

문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바야흐로 우리가 사는 지금을 학문·경제·산업 등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 영역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규정한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인공지능이 시를 읽고 시를 써주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불리는 놀라운 기술혁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가공할 기술혁신 시대에 문학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문학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글을 쓰는 것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여타의 이유가 있을 터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즉 자기 확인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다. 삶을 성찰하고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로움을 찾는 것. 낯선 사고와 사유의 감정선을 친근하게 변화시키고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직조해 가는 과정, 그 고단한 글쓰기의 행위에서 정신의 충만함을 채워 가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겠다.

올해 ‘중구문예문학상’ 응모작들 상당수가 고른 질적인 향상을 보인다.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사물에서 새로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깊은 성찰과 고민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눈에 들어왔다. 일반부 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미애의 〈호수공원 가는 길〉이 그렇다. “눈이 하얗없이 사박사박 날리던 날 호수공원 가는 길” 표면은 이렇듯 평화롭고 낭만적인 풍경이지만 “모가지가 땡강 떨어져 나간 닭들이”,

“60대 가장의 자살과 어린아이의 실족사”에서 표상하듯 그 이면의 세상은 전혀 평화롭지 않으며, 오히려 불평등하고 참혹한 비명이 난무하는 곳이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안락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뼈아픈 현실임을 화자는 놓치지 않는다.

우수상을 수상한 윤소영의 〈개 짖는 소리〉 역시 그랬다. “너도 나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낮부터 지르고 있던 게냐” 인간이든 짐승이든 살아 있음의 무게에는 통증이 있는 법. 시적 화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사를 개 짖는 소리와 동일시하며 동질감을 토로한다. “전쟁터인 양 제 일에만 곤두서 있을 때 들리지도 않던 소리” 평안하고 안온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진리임을, 어둔 밤 ‘개 짖는 소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수상에 선정된 허동원의 〈마네킹〉 역시 무심코 흘려보낸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엮어 낸다. “오늘도 차량 충돌 실험실에 앉아 부서질 시간만 기다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항상 공사 중인 걸요”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 무심코 스쳐 보낸 사소한 것들을 시적 화자는 예사로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렇듯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고 시를 쓰는 자세가 아닐까?

차상을 수상한 고승환의 〈손잡이〉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단함을 공동체라는 가치에 함의를 두고 따뜻하게 길어내고 있으며, 김수현의 〈겨울 철쭉〉은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건우의 〈소공자〉는 외롭고 고단한 현실에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긍정의 마음이, 진수정의 〈모래 같은 사랑〉은 손끝에 남아 있

중구문예문학상

는 모래알과 미진하게 남은 사랑의 감정을 등치시키는 시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일반부 수필에서도 우수한 작품이 다수 응모되었는데, 가족 간의 훈훈한 서사가 주류인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찬미의 〈할머니의 소풍〉은 문장을 끌고 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돋보인다. 할머니와의 애절한 추억이 화자의 체험적 서사에 담겨 있어 감동을 배가시켰다.

우수상의 고미령은 〈자전거의 비상〉에서 아버지와 화자·남편·아이와의 유대감을 ‘자전거’라는 매개로 탄탄한 문장 속에 동화처럼 담아내고 있다. 〈어머니의 선물〉의 장월남은 혼수로 장만해 준 이불에서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있는데, 간결하고 안정된 문장이 마음을 움직인다.

차상의 박신영은 〈그때는 몰랐던 일〉에서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내고, 정희아는 〈행복의 향기〉에서 농사짓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애절한 시선으로 엮어 낸다. 〈엄마의 등받이〉에서 주선미 역시 힘겨운 노동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선물했던 일화를 담담한 서사에 담아내고, 〈숲의 선물〉의 최양수는 병들고 지친 심신을 휴양림에서 치유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깔끔한 필체로 그려낸다.

학생부 시 부문, 〈반딧불이〉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인은 시를 엮어 가는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 반짝이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비상하는 ‘반딧불이’의 특성을 뛰어난 문장 속에 표상한다. 앞으로의 빛나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우수상을 수상한 고운율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숭고한 영혼들’에게 주목하고 애정 어린 헌사를 보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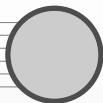
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참혹한 역사 앞에서 시적 화자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내 살아야 할 의지를 다지곤 한다. 우수상의 송유찬은 〈가을〉에서 시각·후각·미각 등 공감각을 사용해 시가 통통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린이다운 천진함과 순수함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차상의 차재원은 〈그림자〉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심심하고 짜증 날 때” 같이 있어 주는 든든한 존재로 묘사하고, 차지안은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한 세상보다는 스위트한 공간을 꿈꾸며 낙관적인 시심을 담아낸다.

학생부 수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정인의 〈이방인 탈출〉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문장이 눈길을 잡아 둔다.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어 정신적 자양분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통찰력이 돋보이는데, 그 성숙한 정신에 격려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우수상의 이예린은 〈살아가는 것과 페달 굴리는 것〉에서 삶을 성찰하고 관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는데, 어린 학생답지 않은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청명한 울림을 준다. 글도 삶도 훌륭하게 설계하고 영위하리라는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본다.

수상자 모두에게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중구문예문학상’ 수상을 디딤돌로 문필의 향기와 문운의 날개가 찬란하게 펼쳐지길 소망한다.

중구의 문학 강좌.....



●문학 강좌 안내●

중구문화원-월요 수필, 금요 시 강좌

한국여성문예원-수요 수필반, 목요 시창작 강좌

중구문화원 월요 수필, 금요 시 강좌

〈연혁〉

2006년 2월~4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정목일)
2006년 5월~7월	시 강좌(강사: 시인 문효치)
2006년 8월~10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정목일)
2006년 11월~2007년 1월	시 강좌(강사: 시인 맹문재)
2007년 2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오철수)
2007년 7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소설가 윤동수)
2008년 1월~3월, 7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08년 4월~6월	월요 소설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중)
2008년 1월~6월, 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오철수)
2008년 7월~8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황학주)
2008년 9월~11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고형렬)
2009년 2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09년 2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0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0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1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1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손광성)
2012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2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3년 1월~12월	목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3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4년 1월~12월	금요 시 강좌(강사: 시인 유자효)
2014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5년 1월~12월	월요 수필 강좌(강사: 수필가 오병훈)
2016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7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8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9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0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1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2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3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4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강의 시간·장소〉

월요 수필 강좌: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금요 시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어반스케치 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중구문화원 강의실

한국여성문예원 수요 수필반, 목요 시창작 강좌

〈연혁〉

2009년 9월~11월	시낭송 강좌(공혜경, 성병숙 외)
2010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공혜경, 유형준)
2011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3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장충렬, 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4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성병숙, 이진화, 박도현)
2017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박도현, 이주은, 신찬혁 외)
2018년 3월~11월	시낭송 강좌(이주은, 신찬혁, 권혁우, 이진화 외)
2010년 4월~8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임곤택)
2010년 9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박성현)
2011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박성현)
2012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이승희)
2013년 1월~12월	시창작 강좌(강사: 시인 이승희)
2013년 5월~10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종 외)
2014년 5월~10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종 외)
2015년 1월~12월	수요인문학 강좌(강사: 소설가 유현종 외)
2018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19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0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1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2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3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2024년 1월~12월	현재 문학 강의 진행

〈강의 시간〉

수요 수필반: 매주 월요일 오후 7시~8시 30분

화요 시낭송: 매주 화요일 오후 6시~8시

목요 시창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8시

〈강의 장소〉

수요 수필반: 한국여성문예원 강의실

화요 시낭송: 중구구민회관 소강당

목요 시창작: 한국여성문예원 강의실

문학, 즐겁고도 어려운

이이향 | 편집장 |

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가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고 갑작스런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의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강 작가의 스웨덴 한림원 노벨문학상 수상자 공식 인터뷰 중

《중구문예》는 기성 문인뿐만 아니라 문인을 꿈꾸는 중구민들을 비롯한 예비 문인들의 원고를 한데 묶어 좀더 다양한 계층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 친근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 이어 오고 있다. 장금생문학상을 수상하며 《중구문예》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되신 수필가 권남희 선생님은 그 문학적 자양을 이곳 중구에서 발현시켰다고 한다. 현재 한국수필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우리 문단의 중진이신 선생님께서도 처음 문학의 길을 들어선 인연이 한국여성문예원의 문학강좌에서 꿈을 키우셨다고 하니 《중구문예》 또한 의미가 크다.



또한 중구문예문학상에도 해를 더할수록 응모작의 질적 양적 향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의 인과성이 없지 않겠지만 향상을 거듭하고 있는 응모작의 수준들이 심사위원을 즐겁고도 어렵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 두고 싶다. 그만큼 《중구문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니 지금까지 걸어온 《중구문예》의 노정이 새롭게 다가오는 연말이다.

이제 올해 《중구문예》와 첫 인연을 맺은 예비 문인들이 머지않아 우리 한국문단에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기고 위상을 떨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집을 마무리하며 《중구문예》를 후원해 주신 중구청과 중구문화원 그리고 한국여성문예원 이사님과 회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제23회 《중구문예》 문학상
작품 공모

2025년 제23회 《중구문예》 문학상 작품 공모는
새로운 모습으로 문학상 응모자 여러분께 중구
문화원 홈페이지(www.junggucc.or.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2024

중구문예

발행처 | 서울중구문화원

편집인 | 한국여성문예원

발행일 | 2024년 12월 3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중구문화원

우편번호 04541

전 화 | 775-3001

F A X | 775-3068

〈비매품〉

*《중구문예》에 실린 글과 사진은 중구문화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구문예》에 실린
모든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책지는 시비를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